

국통조 82-10-1615

南北韓比較

南北韓經濟現況比較

보관용

(관리과) 3

1982

國土統一院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査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研究
報告書임.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이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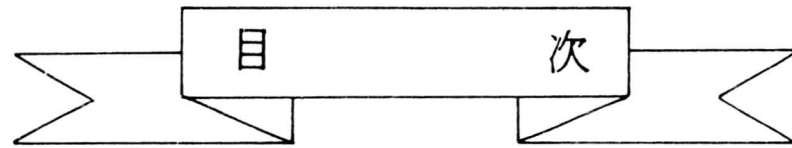
南北韓比較

南北韓經濟現況比較



研究執筆 및 刊行責任 **李世震**
(調査研究室 補佐官)

國土統一院 調査研究室



I . 南北韓 經濟의 比較基準	3
1 . 比較分析上の 制約條件	3
2 . 總量概念의 相異	6
가 . 國民總生産과 社會總生産	6
나 . 國民所得計算方法의 相異	9
3 . 國民所得과 國民厚生의 隔差	9
II . 南北韓 經濟體制 및 政策의 基本方向	12
1 . 經濟體制的 比較	12
2 . 經濟開發戰略의 比較	15
가 . 經濟開發動因과 特徵	15
나 . 工業化戰略	18
3 . 經濟政策의 基本方向比較	20
III . 主要部門別 現況比較	24
1 . 總量部門	24
가 . 概況	24
나 . 國民總生産	26
2 . 財政規模	28
가 . 南北韓 財政制度의 特徵	28
나 . 歲出	29
다 . 歲入	30
3 . 農水産部門	32
가 . 農業構造	32
나 . 農業生産基盤	33

다. 食糧作物生産量	35
라. 水産物生産量	36
4. 鑛工業部門	37
가. 政策目標 및 工業化戰略	37
나. 鑛工業資源과 에너지	38
다. 重化學工業	40
1) 鐵鋼 및 非鐵金屬工業	40
2) 機械工業	41
3) 化學工業	43
4) 輕工業	44
5. 社會間接資本部門	46
가. 概念	46
나. 社會間接資本施設	47
6. 對外貿易部門	50
가. 貿易規模	50
나. 輸出入商品別, 地域別 構造	52
IV. 南北韓經濟成長展望	55
1. 經濟開發成果	55
가. 韓國	55
나. 北韓	56
2. 構造的 強弱點	58
가. 韓國	58
나. 北韓	59
3. 展望과 結論	60
가. 韓國의 經濟·社會發展	60
나. 北韓經濟의 構造的 問題點과 體制變化	62

I. 南北韓 經濟의 比較基準

1. 比較分析上的 制約條件

오늘날 比較經濟體制(Comparative Economic System) 下에 있는 南北韓의 經濟實像을 比較하는 것은 北韓의 經濟體制가 우리의 自由資本主義 經濟體制와는 根本적으로 그 本質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다.

첫째, 經濟體制的 相異에서 惹起되는 問題點이 있는데, 北韓의 經濟秩序를 理解하고 南北韓의 經濟力量을 比較함에 있어서 民間經濟部門이 存在하지 않는 北韓의 經濟體制를 단순히 우리의 視角만으로 分析한다면 誤謬를 범하기 쉽다. 北韓을 包含하여 대개의 共產主義國家들은 私有財産을 否定하고 있어서 財産 및 生産手段의 所有形態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流通秩序도 自由資本主義國家와는 크게 다른 實情에 있다. 이렇게 流通秩序가 다르므로 해서 流通過程에서 作用하는 貨幣의 機能도 兩體制間에는 서로 다르기 마련인 것이다. 따라서 貨幣의 機能도 다르기 때문에 共產主義諸國의 通貨에 대한 換率의 適用問題(Equilibrium Foreign Exchange Rate)가 그들의 經濟問題를 分析하는데 또 하나의 어려운 問題點이 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北韓에서 使用하는 經濟用語나 概念이 自由資本主義 經濟體制에서 通常적으로 使用하는 經濟用語와 그 概念을 달리하는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分析에 隘路가 많은 것이다. 北韓과 더불어 共產主義國家에서 使用하는 國民所得의 概念은 資本主義國家에서 使用하는 그것과는 다른 것이다. 오늘날 「쿠즈넛트」(Simon Kuznets)類

型的 西歐 資本主義國家의 國民所得概念은 一定期間에 國民經濟가 새로이 生産한 財貨와 用役의 附加價值 (Net Value Added) 總額을 말하고 있는데 반하여, 소련을 위시한 東歐 共產主義諸國에서의 國民所得概念은 一定期間에 國民經濟가 生産한 財貨의 單純總生産高를 말하고 있으며, 더우기 서비스産業部門이 除外되고 있는 것이 特徵이다.

따라서 一般的으로 共產圈諸國의 國民所得概念을 西方概念으로 換算할 때 中間財와 같은 重複計算分을 除外시켜야 함은 물론 서비스部門을 投入시켜야만이 西方概念과 일치하는 것이다.

세째, 北韓에서 使用하고 있는 經濟單位가 우리가 通常적으로 使用하는 單位와 서로 다른 것이 많기 때문에 南北韓의 經濟力量을 同一基準에서 比較하는 데는 어려움이 또한 따른다 하겠다.

예를 들면 北韓에서는 織物의 生産量을 表示할 때 單純하게 미터法에 의한 길이로만 表示하고 幅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正確한 織物生産量을 알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한 이와 類似한 例로서 發電能力은 言及없이 發電量만 發表하고 있기 때문에 各發電機別 負荷率이 얼마인지, 豫備電力 또는 不足電力이 얼마인지는 더더욱이나 파악하기 어렵다.

네째, 南北韓間에는 産業構造와 消費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또한 比較分析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면, 에너지의 主宗을 石炭에 依存하고 있는 北韓의 에너지供給構造를 精油量이나 石油消費量을 통해서만 分析하려 한다면 이는 큰 失手를 犯하게 될 것이며, 또한 石炭化學工業에 依存하는 北韓의 化學工業構造를 石油化學工業의 視角에서 把握하려는 努力은 無

爲로 끝날 것이다.

끝으로 南北韓의 經濟力量을 比較하는 데는 資料의 貧困이 큰 問題이다.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問題點들도 資料만 충분하다면 어느 程度 分析이 可能하다고 본다.

資本主義國家와 共產主義國家의 經濟力量比較에 있어서는 異質的인 體制에서 發生되는 概念 및 制度上的 差異가 比較上的 隘路要因이 될 뿐만 아니라, 특히 資料의 貧困에서 오는 制約이 가장 큰 問題點이라고 하겠다.

北韓은 各種 統計資料를 거의 發表하지 않는 것이 特徵인데, 各種 統計資料에 대해서 保安措置가 嚴格하여 經濟政策의 立案에 參與하고 있는 高位幹部들도 正確한 資料를 갖고 있지않는 實情이므로 外部의 專門家가 그들의 經濟實像을 分析·評價한다는 것 역시 至難한 일이다.

北韓에서는 1965年부터 經濟統計를 일체 發表하지 않고 있으며, 간혹 단편적으로 金日成의 新年辭, 豫決算報告書, 經濟計劃報告書 및 各種 報告文 등에서 나오는 몇 개의 統計値가 北韓經濟統計의 全部인데 그것도 基準年度對比 指倍數로 發表하기 때문에 實數나 實量을 測定하기 어렵다.

그리고 宣傳적으로 發表하는 資料도 信憑性的 缺如는 물론, 統計 處理方法이 다를 뿐만 아니라 統計資料의 不連續性, 즉 時系列의 缺如는 北韓經濟分析의 커다란 制約要因이 되고 있다.

더우기 北韓의 統計는 縱橫의 數値를 크로스·체크 (Cross Check) 해보면 一致하지 않거나, 常識的인 判斷으로는 도저히 納得이 안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즉 操作되거나 歪曲된 數値가 習慣적으로 또

한 慣行的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北韓經濟의 實像은 부풀리면 부풀리는대로, 쪼그리면 쪼그리는대로 그 모습을 달리하고 있어 흡사 고무풍선과 같은 樣態를 띄고 있다 하겠다 .

이러한 實例로는 粗穀概念의 穀物生産 統計에서 잘 나타나 있다. 즉 北韓이 發表하는 “알곡”生産에서의 알곡이란 「남알로 된 곡식」을 뜻함에도 불구하고 이에는 감자, 고구마의 著類가 包含되고 있으며, 또한 옥수수 의 경우 옥수수통(통강냉이)째 計算됨으로 實量보다 誇大評價되며, 또한 立毛減耗 等에 의한 自然損失分을 감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알곡生産量을 精穀概念으로 換算하였을 경우 其 差異는 엄청나게 크다.

또한 이 알곡生産統計의 發表에 있어서도 農業의 特性을 考慮한 合理的인 思考로는 도저히 理解할 수 없는 部分이 많은데, 즉 지난 1974年 11月 北韓의 最高人民會議 第5期 第4次會議에서 「金日成의 農村체제 發表」10周年 記念으로 政務院 總理 金一이 報告한 農業統計中에서 1973, 1974年의 農業成長率이 각각 30%라고 發表한 事例가 바로 그것이며, 이러한 類의 發表事例는 허다하다.

2. 總量概念의 相異

가. 國民總生産과 社會總生産

一般的으로 한나라 國民經濟의 總量을 把握하는데 있어서는 흔히 國民總生産이라는 概念을 使用한다. 이 國民總生産(GNP : Gross National Product)은 一國의 國民經濟가 一定期間, 즉 普通 1年 동안에 生産한 財貨와 用役의 附加價值總額을 市場價格의 貨幣單位

로 算定한 額數이다.

따라서 諸國의 國民經濟를 比較하는데 있어서는 國民總生産額이나 1人當 國民總生産額을 比較하는 것이 通常的인 方法이다.

그러나 同一한 自由資本主義 經濟體制下에서는 國民總生産의 基準이 서로 比較될 수 있지만 體制가 相異한 資本主義經濟와 共產主義經濟體制를 固守하는 國家間에는 國民總生産의 概念이 同一하게 適用될 수 없는데 그것은 總量指標로서의 國民所得概念이 根本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共產主義國家에서는 總量指標로서 社會總生産 (G.V.S.P: Gross Output Value of Social Product) 과 國民所得이라는 두가지 指標를 使用하고 있는데 이들 概念은 國民總生産 (GNP) 의 概念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社會總生産은 國民經濟의 모든 生産單位의 總生産量을 單純하게 算한 額數이며 그 計定上에 있어서 모든 生産單位는 外部로 부터 投入된 中間財의 價値를 排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額數를 算定하는데 있어서 中間財의 重復計算分의 程度는 算定方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資本主義經濟體制에서는 國民經濟가 發展할수록 全體 國民總生産 中에서 3次産業部門이 차지하는 比重이 增大하게 된다. 그러나 社會主義國家에서는 社會總生産概念에서 特定 3次産業部門을 除外하고 있는 것이 特徵이다.

그 理由는 「마르크스」(Karl Marx)의 價値論에 根據를 두고 있기 때문인데 즉 「마르크스」의 理論에 의하면 生産物 혹은 그 價値는 「生産的 勞動 (Productive Labor)」에 의하여 發生한다는 것이다. 그러

므로 生産的 勞動이라 함은 「人間的 欲求를 滿足시키기 위하여 生産要素를 統制 또는 變型함으로써 物質生産에 投入되는 勞動」이라고 定義하고 있다. 따라서 物質生産과 直接的으로 관련되는 것만이 社會總生産에 包含되고 그 밖의 純粹서비스部門은 除外되는 것이 原則이다.

共產主義國家에서는 需要의 側面에서의 支出國民所得이라는 概念도 없으므로 中間生産物의 需要와 最終生産物의 需要를 區分하여 計算할 수 없으며, 따라서 生産單位의 生産物總額을 單純하게 合算한 社會總生産의 概念을 使用하는 것이다. (1)

그래서 北韓에서도 生産物市場과 生産要素市場의 區分이 없으므로 해서 中間生産物도 包含된 모든 生産單位의 生産總額을 社會總生産이라 하여 이 概念을 使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國民總生産과 社會總生産의 概念의 差異를 다음과 같이 整理할 수 있다.

즉 國民總生産은 「財貨 및 用役의 附加價值總額」으로 定義할 수 있어서 $GNP = \text{全産業의 生産總額} - \text{中間生産物}$ 이라고 表示할 수 있고, 社會總生産은 「財貨의 生産總額」이라고 定義되어 $GSP = \text{全産業의 生産總額} - \text{非生産的 用役}$ 이라고 表示할 수 있겠다.

(1) 中間生産物의 市場은 「스톡크」(Stock)의 市場이며 最終生産物의 市場은 「플로우」(Flow)의 市場이다. 國民所得은 「플로우」에 해당되며, 그 중에 一部가 貯蓄되어 投資되면 「스톡크」를 그만큼 擴大시키고 「스톡크」의 擴大는 다시 「플로우」를 擴大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共產主義 經濟理論에서는 「스톡크」와 「플로우」의 概念이 없으며 모든 生産物은 勞動價値를 基準으로 把握될 뿐이다. 따라서 社會總生産은 勞動價値로 把握된 生産物의 總額인 것이다.

나. 國民所得 計算方法의 相異

自由資本主義國家에 있어서의 國民所得은 分析目的에 따라 여러가지 形態 즉 國民總生産 (GNP), 國民純生産 (NNP), 國民所得 (NI), 個人所得 (PI), 可處分所得 (DI) 等 여러가지로 區分할 수 있다.

그러나 共產主義國家에서 쓰고 있는 國民所得의 概念은 社會總生産에서 中間財와 減價償却費를 除外한 것이며, 國內總生産 즉 最終收領人이 누구이든 간에 國內에서 生産한 總額을 計上하고 있고 實際로 去來된 價格 (要素費用이 아님)에 間接稅 形態의 去來收入金이라는 것을 包含하고 있으며, 經濟主體가 家計, 企業, 政府 等으로 區分될 수 없기 때문에 補助金은 考慮치 않고 있다.

여기에서 注意할 點은 國民所得이 社會總生産額에서 中間財와 減價償却費가 除外된 概念이기는 하나 間接稅와 專賣益金の 形態와 類似的한 去來收入金を 賦課할 때는 中間財이든 最終財이든 모두 包含시켜 實際 去來價格으로 集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去來收入金이 過多하게 賦課되어 計上되고 있다.

더우기 去來收入金の 賦課가 部門別로 衡平을 잃고 있어서 産業部門間에 國民所得의 評價額이 衡平을 잃게 된다. 例를 들면 農業部門이 工業部門에 비하여 過少評價되고 있는데 그 理由는 工業部門에 비하여 農業部門에는 보통 去來收入金이 賦課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農産物價格이 生産原價以下로 策定되는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國民所得과 國民厚生の 隔差

國民所得이나 個人所得額을 중심으로 特定한 國家의 國民所得水準

과 國民厚生福祉水準을 評價하는데 있어서는 먼저 投資와 消費사이의 生産物の 分配面을 살펴보는 것이 重要하다.

南北韓 經濟力量을 比較함에 있어서 分明히 結論지을 수 있는 것은 資本主義經濟體制가 生産活動에 있어서 能率的이며, 아울러 價格機構를 통한 資源配分이 經濟成長과 發展에 効率的이라는 事實이다. 이에 비하여 共產主義經濟體制는 分配의 側面이 強調되고 있다고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國民厚生과 福祉面에서는 資本主義國家보다 훨씬 뒤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共產主義國家는 「스탈린」式 「一國家社會主義」라는 目標를 追求하고 있기 때문에 重工業優先政策을 經濟政策의 基本으로 삼고 있는데, 이러한 重工業優先政策의 固守는 産業間의 不均衡을 深化시키고 資本의 非効率性을 增大시킴으로써 資本의 浪費가 심하고 결국 消費財의 不足과 消費水準을 低下시키는 結果를 招來하고 있다.

이와 같이 經濟體制나 政策의 基本路線에 따라서 實質적인 面의 國民厚生은 判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1人當 GNP로서 異質적인 體制下의 國民消費生活水準을 比較하는데 있어서는 相當한 問題點이 內在되어 있음을 認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事實은 이미 1950年代末에 「아브라모비츠」(Moses Abramovitz)가 美國과 蘇聯의 經濟力을 比較하면서 하나의 問題點으로 提起한 것을 想起해 볼 必要가 있다. 「아브라모비츠」는 個人當 國民所得으로서 蘇聯의 1人當 GNP가 美國의 그것에 비해 約 40% 水準에는 있으나, 國民厚生面에 있어서의 消費生活隔差는 約 1/7 水準에 不過한다고 指摘한 바가 있다.

결국 1人當 GNP 즉 生産水準의 隔差보다 1人當 消費 즉 生活水準의 隔差가 더욱 심하다는 것이다.

더우기 北韓은 閉鎖的 社會에서 극도의 重工業優先政策을 追求한 결과, 60年代에는 經濟開發에 있어서도 差跌을 빚어내어 結果적으로 住民生活의 犠牲을 強要하고 만 것이다.

오늘날 軍需産業主導型 經濟로 치우친 北韓에서 1人當 GNP의 增大는 北韓住民들의 生活水準이나 厚生福祉의 向上과는 별로 큰 相關이 없으며, 南北韓間에 存在하는 1人當 國民總生産의 隔差보다 厚生福祉水準의 隔差는 더욱 큰 實情에 있다.

以上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總量指標의 概念 相異 및 資料의 制約으로 말미암아 南北韓 經濟力量比較에는 많은 問題點이 內在하고 있음은 前述한 바와 같다.

그러나 本稿에서는 南北韓 經濟現況을 比較할 項目을 가능한 限 同一化시키고 특히 資料의 處理에 있어서는 北韓이 간헐적으로나마 發表하는 統計를 그대로 認定하면서, 다만 지나치게 誇張되었거나 相互 矛盾된 數値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與件과 資料등을 勘案하여 綜合評價함으로써 最大限 客觀化시켜 論述하고자 한다.

Ⅱ. 南北韓 經制體制 및 政策의 基本方向

1. 經濟體制의 比較

自由資本主義 經濟體制란 私有財産의 基盤 위에서 「價格機構」(Price Mechanism)에 의하여 自律적으로 資源의 配分이 이루어지는 制度的 形態를 말한다. 따라서 個人的 合理的인 利潤追求를 經濟活動의 原動力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國民經濟에 있어서 投資와 生産活動의 主體는 民間企業이 위주가 되고 있으며, 모든 經濟活動은 價格機構에 의한 自由競爭의 原理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價格機構를 통한 自律적인 資源配分과 利潤動機에 立脚한 創意的인 企業活動은 經濟의 成長과 發展에 있어 매우 效率的임은 再言할 必要가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共產主義 經濟體制下에서는 生産手段의 私有를 否定함으로써 中央集權的 計劃에 의하여 劃一的으로 資源의 配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마르크스」理論을 바탕으로 하여 소련을 비롯한 모든 共產主義國家들이 程度의 差는 있다 할지라도 計劃經濟를 實施하고 있다.

「마르크스」主義者들은 經濟의 成長이나 發展보다도 分配의 問題에 力點을 두고 있으나, 結果적으로 「貧困의 均等配分」 즉 住民統治의 手段으로 「均貧」을 故意的으로 操作하거나 追求한다. (이도 實은 黨 및 政權機關의 幹部層을 中心으로 한 共產貴族階級은 例外로서 西方世界의 富裕層 못지않는 豪華生活을 누리고 있다) 그러면서 資本主義體制에 있어서는 經濟가 發展하면 貧益貧과 富益富가 深化되

어 一般大衆은 계속 貧困과 飢餓에 시달리며 少數의 資本家階級들만이 富를 누리는 顛倒된 社會를 形成하게 된다고 主張한다. 여기서 顛倒된 社會란 本來 勞働者가 支配해야 할 社會에서 資本家가 支配하고 있는 것은 主客이 顛倒된 것이라는 뜻에서 出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矛盾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勞働者들의 革命에 의한 프롤레타리아의 共同社會를 實現시켜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主張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資本主義가 高度로 發達된 先進國에서는 共產化의 威脅이 없고 오히려 東南亞나 南美, 아프리카와 같은 後進된 地域이 共產化의 威脅을 받게 된다는 事實은 資本主義 經濟體制가 發展될수록 矛盾에 直面하기 때문에 革命이 필요하다는 「마르크스」主義者들의 主張과 다른 結果를 보여주고 있다. 즉 共產主義는 高度의 資本主義에 成功한 先進國에서는 발붙일 곳이 없는 반면에 資本主義發展에 失敗한 後進國에서 발붙일 수 있다는 事實이 이를 立證하고 있다.

그러므로 「로스토우」(W. W. Rostow)는 共產主義를 資本主義發展에 失敗한 나라들이 感染되기 쉬운 「過渡期の 疾病」(A Disease of Transition)이라고 하였다.

事實上 現在 共產國家들인 소련, 中共, 東歐諸國, 北韓 등의 모든 共產主義國家들중 資本主義의 發展을 거쳐서 共產國家가 된 나라는 하나도 없다.

어쨌든 共產主義 經濟體制에서는 生産手段의 私유가 許容되지 않으며, 따라서 모든 資源의 配分, 職業의 選擇, 價格의 決定등이 中央集權的인 計劃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그 基本으로 하고 있다.

北韓의 經濟體制도 「마르크스」의 理論을 기본 바탕으로 하여 計劃經濟를 實施하고 있는데 이러한 計劃經濟의 類型도 「드레브노프스키」(Jan Drevnovski)가 말하는 典型的인 獨裁모델(Dictatorship Model)에 속한다. 이러한 北韓 經濟體制的 基本的인 特徵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生産手段의 國·公有化를 들 수 있다. 北韓은 지난 1950年代 後半에 들어와서 모든 個人的 私有財産과 中小商工業을 「利用·制限·改造」라는 3段階의 欺瞞戰術을 驅使하여 完全히 消滅시켰으며 壓力과 強制手段으로서 國營 또는 協同團體에 吸收하였던 것이다.

둘째, 위와 같은 生産手段의 國有化와 農業生産의 集團化를 바탕으로 北韓은 中央集權的 計劃經濟를 實施하고 있으므로 해서 모든 生産指標와 生産活動은 中央의 劃一的인 統制下에 管理되고 있다. 이러한 中央集權的 經濟管理體制는 計劃機構와 執行機構間的 矛盾과 軋轢, 上部機關과 下部 生産單位 사이의 摩擦은 물론, 生産單位에 있어서의 創意와 能率의 缺如를 招來함으로써 經濟의 持續的 成長을 沮害하고 있다.

셋째, 中央當局에 의해 政策的으로 公定된 價格은 生産과 消費의 調節機能을 갖지 못하며, 勞動價値說은 그 자체의 矛盾으로 商品의 品質을 測定할 基準이 없기 때문에 品質管理가 없는 量的인 目標達成에 치중하게 되고, 나아가서 利働機가 없는 生産活動은 生産單位의 創意와 能率을 排除함으로써 生産性を 低下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련이나 東歐諸國과 最近의 中共에서는 이와 같은 生産能率의 低下를 防止하기 위하여 1960年代 初半부터 生産活動에

利潤原理을 導入하고, 決定機能을 下部에 어느 정도 分散시키는 등, 體制内部的 矛盾을 除去하기 위하여 制度上的 改革을 斷行하고 있다. 이러한 事實은 共產主義國家가 自由市場의 競爭原理에 立脚하고 있는 資本主義經濟體制 및 制度上的 原理를 一部 導入한 것이기 때문에 「修正主義」라고 불리어지고 있다.

이에 비하여 北韓은 아직도 1930年代에 소련이 취하였던 原始的인 中央集權的 計劃經濟體制를 그 基調로 固守하고 있다. 이것은 「레닌」이나 「스탈린」의 傳統的 共產主義를 與件이나 狀況의 變化를 考慮함이 없이 無條件 踏襲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教條主義」라고 부른다.

2. 經濟開發戰略의 比較

가. 經濟開發動因과 特徵

最近 韓國經濟는 2次에 걸친 石油波動과 國際經濟의 昏迷로 여러가지 面에서 어려움을 겪고는 있으나 지난 60, 70年代 韓國民이 이룩해 놓은 經濟的 成果는 여러 開發途上國들에게는 훌륭한 본보기의 하나로 충분하다고 하겠다.

60年代初 韓國經濟는 1人當 國民所得이 87 弗線에 2.88%의 人口增加率을 보이는 典型的인 低開發國이었으며, 여기에 더하여 南北 韓間 緊張으로 인한 莫大한 國防費負擔을 안고 있었다. 그러나 20餘年을 지난 1981年 韓國은 1人當 GNP 1,636 弗에 209億 弗(國際收支基準)의 輸出高를 記錄함으로써 브라질, 멕시코, 대만, 홍콩, 싱가포르와 더불어 新興工業國家(NICs: Newly Industrialized Countries)의 一員이 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韓國經濟가 괄목할만한 成長과 發展을 이룩할 수 있었던 理由는,

첫째, 1973年 以前까지 世界經濟가 순조로운 發展을 해 왔으며 石油을 비롯한 國際資源價格이 安定勢를 維持했다는 점이 對外指向的 經濟開發의 內實을 期하게 해 주었다고 하겠다. 우선 國際貿易의 바로미터라 할 國際貿易量指數增加率이 1981년에는 -1.0%였으나 60年代, 70年代는 대체로 8%線을 維持했으며, 國際資源價格 역시 石油의 경우를 본다면 70年代初까지는 오히려 下落할 정도로 安定勢를 보였다는 점이다. 또한 이같은 世界經濟의 순조로운 發展은 先進諸國의 對後進國 經濟協力餘力を 가능하게 했으며, 특히 美國 「케네디」行政府의 戰後의 援助에서 借款에로의 전환과, UN의 「開發의 10年代」로 表現되는 對後進國에 GNP의 1% 供與要請 등 經濟協力を 둘러싼 國際的 協力雰圍氣는 1962년부터 시작된 第1次 5個年計劃 達成에 커다란 밑거름이 되었다고 하겠다.

둘째로는 60年代 以前부터의 國民의 높은 教育熱이 韓國의 高度 成長의 主要한 要因의 하나였다. 1945年 以前 韓國은 日本의 植民地統治期에 있어서 教育的으로 差別待遇를 받았던 歷史가 解放과 더불어 그 反動으로 많은 初等·高等教育機關이 생겨났으며 50年代 末에는 高等失業者로 인한 大學亡國論까지 나올 정도였었다. 그러나 浪費로 看做되었던 教育投資가 60年代 經濟開發過程에서 良質의 低廉한 勞動力의 供給源이 되었으며 보다 高度化된 工業에로의 移行에 促進劑가 되었다. 아울러 6.25動亂을 거치면서 젊은이의 義務徵兵制 역시 간단한 機械의 操作과 集團生活에서 익힌 組織에의 適應性能力을 培養하였으며 近代的 生産管理의

分業的 關係를 形成하는데 重要な 役割을 擔當하였던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세째로는 무엇보다 지난 20年間 비교적 政治·社會的 安定과 經濟開發에 대한 國民的 合意가 그 動因으로 作用했다는 점이다.

이같은 政治·社會的 安定과 經濟開發에 대한 國民的 合意는 南北韓間의 體制競爭에서도 勝利하겠다는 對北鬪志와 連結되어 결국 北韓의 經濟力보다 뒤떨어져 있던 韓國經濟力이 70年代初 逆轉의 드라마를 演出함으로써 이제는 確固不動한 對北優位の 經濟力을 建設하게 되었다.

네째로는 企業家의 進取的 思考方式과 企業間의 競爭的인 企業擴大意慾을 들 수 있다. 企業들은 政府의 強力한 財政的 金融的 支援아래 무모하다고 할 정도로 企業擴張에 熱을 올렸으며, 특히 外資에 의한 新商品 또는 原料의 輸入代替分野에 있어서 企業間의 競爭的 參與가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이외에 잘 訓練된 官僚組織, 近代的인 銀行, 그리고 交通·通信 등의 「인프라·스트락처」(Infrastructure)의 擴充이 發展의 動因이 되었다고 評價된다.

이에 비하여 北韓은 原始的 形態의 閉鎖體制인 「아우타르키」(Autarky) 經濟體制를 固守하고 있는데, 이는 1966年 勞動黨代表者會議에서 “社會主義 經濟建設에 있어서 가장 重要的 問題는 自力更生의 原則下에서 自立的 民族經濟를 建設하는 것이 黨의 一貫된 路線”이라고 宣言함으로써 그들의 孤立主義的 閉鎖體制를 強調하였다. 이와 같은 「아우타르키」體制는 “各國은 綜合的인 産業基盤을 確保해야 한다”는 「스탈린」式的 「一國家社會主義」를 教條적으로 模放한 것

이며, 한편 1960年代 中盤期부터 共產圈諸國으로 부터의 援助가 激減됨으로서 孤立的인 閉鎖體制는 한층 더 強化되었다 하겠다.

그러나 國土가 狹小하고 資源이 不足한 國家에서 對外貿易을 發展시키지 않는 對內指向的 成長에는 限界가 있기 마련이며, 北韓의 經濟成長에 있어서의 가장 큰 隘路의 하나는 이러한 閉鎖體制의 固守에 있다고 볼 수 있다.

北韓의 경우 閉鎖體制를 固守하고 自力更生의 旗幟下에서 對內指向的 開發만을 追求한 결과 1981年の 輸出額은 13億弗로 韓國의 16分の 1水準에 불과하다. 其實은 北韓도 70年代에 들어와서 經濟成長의 限界를 克服하고 經濟沈滯를 打開하기 위하여 對外經濟協力을 試圖하여 外資와 「플랜트」導入을 推進하였으나 對內投資與件未備로 인한 受容能力의 不足과 償還能力의 喪失로 外債償還에 크다란 試練을 겪고 있다. 이는 對外指向的 工業化를 이룩하지 못한 國家가 外資導入에 依存한다는 것은 지극히 危險한 것임을 단적으로 立證하는 것이라 하겠다.

나. 工業化戰略

韓國은 開發初期에 社會間接資本(SOC: Social Overhead Capital)을 擴充하여 民間企業의 投資環境을 우선 造成하고, 投資財源의 원활한 調達을 위하여 外資導入體制를 確立하였으며, 國際經濟協力の 擴大와 함께 貿易面에서도 積極적으로 開放體制로 移行하여 輸出伸張에 注力하였다.

그리하여 궁극의 進路인 工業化의 方向에 있어서도 第1次計劃期間(1962~66年)에는 電力, 石炭 등 에너지資源과 肥料 등 基幹產

業, 鐵道, 道路, 港灣, 通信 등 社會間接資本施設을 擴充하였고 輸出 增大와 輸入代替産業의 育成에 注力하면서 農業生産基盤을 擴充하였으며, 第2次計劃期間(1967~71年)에는 鐵鋼, 電子 등 工業構造의 高度化와 輸出産業主導의 高度成長, 高米價政策에 따른 農業所得의 增大를 期하였으며 第3次計劃期間(1972~76年)에는 造船, 製鐵, 機械 등 重化學工業의 育成, 國土의 綜合開發, 科學技術의 革新, 새마을運動 등 韓國의 現實과 開發戰略에 알맞는 工業化를 段階적으로 推進하였다. 그리고 第4次計劃期間(1977~81年)에는 그동안의 開發基盤과 國民의 開發意志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 經濟의 自力成長構造를 確立하며, 投資財源의 海外依存에서 脫皮하기 위하여 國際收支를 擴大均衡시키며 産業構造를 더욱 高度化하여 왔다. 現在 推進中인 第5次計劃期間(1982~86年)에는 技術革新과 開發을 擴大하고 能率을 極大化하여 國際競爭力을 提高하고 社會開發을 적극 推進하여 國民生活水準의 衡平的 向上을 追求해 나가고자 추진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共產主義諸國中에서도 가장 硬直的인 經濟體制를 持續하고 있는 北韓은 처음부터 무리한 重工業優先政策을 實施함으로써 輕工業과 住民生活를 犧牲시키고 나아가서는 産業部門間的 激深한 不均衡을 초래 함으로써 計劃遂行에 差跌을 빚고 말았다.

1961년부터 1970년까지 10年間 重工業과 輕工業間的 投資의 配分은 무려 8:2의 심한 不均衡을 나타냈으며, 70年代에 들어와서도 계속 軍需産業과 관련된 重工業開發에만 置重한 결과, 住民들의 消費生活向上慾求가 抑制된 것은 물론, 1961년부터 始作된 7個年計劃은 당초의 目標를 實現치 못하여 遂行期間을 3年이나 延

長할 수 밖에 없었다.

그 후 1970年代에 들어와서 1971년부터始作한 6個年計劃에서도 兵力의 急激한 增強과 함께 軍需産業과 관련된 重工業優先政策을 緩和하지 않아 同計劃을 1975年 8월에 中斷하고, 1976~77年을 産業間에 深化된 不均衡을 是正하는 「緩衝期」로 設定하였었다.

1977年 12月 現 李鍾玉內閣이 들어서면서 以前 金一內閣의 無理한 計劃目標를 다소 下向調整하여 現在 第2次 7個年計劃(1978~84年)을 推進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工業化戰略의 變化나 그 成果는 없는 것으로 評價되며, 昨今の 經濟沈滯는 繼續 深化됨으로서 金日成後繼體制構築作業과 관련하여 政治·社會的인 不安定要素로 擡頭되고 있다.

3. 經濟政策의 基本方向比較

南北韓 經濟政策의 基本方向을 보면 韓國은 政濟政策의 基本目標를 國民福祉의 向上과 自立經濟의 達成에 두고 있으며, 아울러 北韓의 對南挑發과 緊張激化企圖에 對應키 위한 效果的인 國防力增強에 두고 있다. 이러한 目標를 達成키 위한 具體的인 政策으로서는 첫째, 安定基調위에서의 成長追求란 立場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石油波動으로 惹起된 지난 1973年末 以後와 같은 國際的인 不況에도 불구하고 1974~5年에도 經濟成長率 7~8%란 高度成長을 持續할 수 있었던 것이다.

둘째, 重化學工業의 建設促進政策을 強力히 推進하여 工業基盤을 튼튼히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1974年에 26萬屯級の 油槽船을 建

造하였는가 하면 1981년에는 輸出商品의 92.9%가 工産品으로서 産業構造와 아울러 輸出商品構造가 高度化되었다.

세째, 農漁村經濟의 革新的 開發政策을 追求하는 바, 1960年代의 第1, 2次 經濟開發計劃을 통하여 農漁村에서의 貧困과 沈滯의 惡循環을 打破하기 위하여 努力하여 그 結實을 보았으며, 1968年以後에는 農漁村所得増大와 環境改善을 위하여 農外所得事業과 새 마을 事業을 積極 開發·育成하며 또한 農漁民後繼者 育成事業을 重點的으로 推進하여 産業化에 따른 農村人口의 都市로의 流入을 抑制하는 가운데 農村生活의 福祉水準 向上에 注力하고 있다.

네째, 對外指向的 工業化를 追求한다. 그래서 지난 開發의 20餘年間 輸出은 劃期的인 伸張을 보여 對外指向的 經濟政策이 韓國經濟의 發展을 主導하였다고 하여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1960년에는 3,200萬弗에 불과하던 輸出額이 1981년에는 國際收支基準으로는 2.09億弗, 通關基準으로는 213億弗에 이르러 産油國을 除外하고 1980年 世界 29位에서 19位로 浮上하는 등의 놀라운 發展과 더불어 韓國의 貿易額이 世界交易量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1.15%에 이르게 된 것이 이를 實證한다 하겠다.

한편 北韓 經濟政策의 基本方向으로는

첫째, 閉鎖經濟體制를 固守하고 있는 것인데 北韓은 經濟體制를 社會主義的으로 改造하면서부터 自力更生의 原則을 堅持하여 왔다. 이는 生産手段 및 消費財에 대한 内部需要를 基本的으로 自體內에서 充足시키고, 아울러 技術革命과 擴大再生産의 物質的 條件을 自體內에서 解決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自力更生의 原則 즉 閉鎖體制의 固守는 資源과 資

本不足을 深化시키고 技術水準이 落後됨으로써 對外經濟協力과 交流에서 오는 國際分業의 利益을 얻지 못하게 되는 結果를 招來한다. 이와 같은 孤立된 閉鎖體制의 固守는 “各國은 綜合的인 産業基盤을 確立해야 한다”는 「스탈린」의 「一國家社會主義論」을 그대로 模倣한데서 起因한 것임은 前述한 바와 같다.

둘째, 重工業優先政策의 繼續的인 追求이다. 본래 重工業은 1次産業과 輕工業의 뒷받침 위에서 技術的 基盤이 마련되어야 效果的인 發展을 기할 수 있는 것인데도 北韓은 이와 같은 産業基盤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經濟體制를 社會主義的으로 改造하는 初期부터 自力更生의 原則과 함께 持續하고 있다.

결국 重工業優先政策은 軍需産業育성과 연관되어 武力赤化統一을 公言하고 있는 그들에게 政策的 名分을 提供하여 주고 있으며, 그 결과 産業間 不均衡의 深化와 資源의 浪費로 인한 經濟沈滯를 招來하게 된 主要要因이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北韓은 耐乏生活에 의한 最大限의 蓄積과 軍需産業·위주의 重工業優先政策을 계속적으로 推進함으로써 住民生活은 低位의 水準에 머물러 있다.

셋째, 國防과 經濟의 並進策을 들 수 있다. 1962年 12月 勞動黨 第4期 5次全員會議에서 4大軍事路線을 採擇하고 60年代 中盤期에 共產圈의 理念紛爭과 中蘇紛爭의 激化로 “國防에서의 自衛”을 提唱하면서 “經濟發展을 지연시키더라도 軍事力을 더한층 強化해야 한다”고 하여 國防建設과 經濟建設의 並進政策이 展開된 것이다.

이와 같은 「國防·經濟並進政策」은 1966年 10月 黨代表者會議에서 公式化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데, 經濟發展과 軍事力強化를

동시에 追求하려면 住民消費生活의 抑制뿐만 아니라 資源의 歪曲配
分에서 오는 浪費를 甘受해야 되며 또한 各種 名目の 社會主義勞
力競爭運動의 一環으로 強制勞役に 北韓住民들이 酷使될 수 밖에 없
다.

Ⅲ. 主要部門別 現況比較

1. 總量部門

가. 概況

南北韓의 人口는 1981年 年央人口(Midyear Population) 基準으로 韓國이 3,872萬名, 北韓은 1,809萬名으로 推定되고 있다. 人口增加率은 韓國이 1.57%, 北韓은 2.23%로서 韓國보다 北韓이 相當히 높다. 經濟活動人口는 韓國이 1,471萬名으로 總人口의 38%, 14才以上 人口對比의 經濟活動參加率은 56.6%이며, 北韓은 經濟活動人口가 816萬名으로 總人口의 45.1%, 經濟活動參加率은 70.2%에 이를 것으로 推定된다.

이렇게 北韓의 經濟活動參加率이 韓國보다 高率인 理由는 北韓의 경우 1970年 11月 第5次黨大會에서 “女性들을 부엌으로부터 解放시킨다”는 決定의 採擇에 따라 거의 대부분의 家庭主婦가 生産活動에 從事하게 되었으며, 또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말라”는 敎示에 따라 社會扶助의 對象인 老人들도 거의 대부분이 勞動에 從事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人民警備隊를 포함한 正規軍兵力의 過多保有와 特別獨裁對象區域 및 敎化所에 收容되어 있는 受容者가 많아 이 部門에서의 非經濟活動人口의 幅은 크다 할지라도 上記한 家庭主婦의 強制的 就業과 죽을때까지의 勞動義務遂行에서 招來되는 要因이 더욱 크기 때문에 相對적으로 北韓의 經濟活動參加率은 높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高率의 經濟活動參加率에도 불구하고 勞動生産性

이 낮은 이유는 體制内部的 構造的 問題點 외에도 科學技術水準의 落後와 産業設備의 老朽化에 起因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마저도 工場企業所의 빈번한 操業中斷 및 稼動率低調로 昨今の 經濟沈滯와 함께 勞動力過剩現象을 惹起하여 심각한 失業問題에 直面해 있다. 그리하여 北韓은 이 問題의 解決을 위하여 「4大自然改造事業」이라는 名目下에 剩餘勞動力을 西海岸의 于瀉地開墾과 野山 및 遊休地 開發에 集中投入하고 있으나 實効는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이 社會的인 不安要素로 登場되고 있다.

國土面積은 韓半島 全體가 22萬餘km²인데 이중 韓國은 99,016 km²이고 北韓地域의 面積은 122,370 km²로서 韓國이 總面積의 45% 北韓이 5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國土의 利用面에 있어서는 韓國은 相對적으로 平野地帶가 많고 氣候條件이 좋아서 農業生産과 交通運輸面에서 有利한 立地條件을 갖추고 있다. 더우기 國土의 綜合的 利用과 開發에 따라 全天候農業施設의 擴充과 全國이 1日生活圈에 속하는 高速道路網의 完成 등으로 國土를 効率的으로 利用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北韓은 國土利用에 不利한 山岳地帶의 過多와 아울러 狼林山脈으로 兩分되어지는 東西地域分離의 問題點과 東西海岸의 分離등의 不利한 條件때문에 開發에서의 落後相을 면치 못하고 있다.

반면에 地下資源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鉍物資源이 北韓地域에 偏在되어 있고 水資源도 豊富하여 工業의 立地條件은 韓國보다 월등히 유리한 立場에 있다하겠다.

나. 國民總生産

이러한 與件下에서 南北韓은 앞에 말한 바와 같이 體制의 相異와 開發戰略에 있어서의 현저한 差異를 갖고 獨自적으로 각각 經濟開發을 추구하여 왔는데 이의 結果로서 國民總生産을 比較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國民總生産의 規模는 1981年 現在 韓國은 GNP가 633億弗이며 1人當 GNP는 1,636弗의 水準에 이르고 있으나 北韓은 GNP가 135億弗, 1人當 GNP는 750弗의 水準으로 推計됨으로써 GNP는 北韓이 韓國에 비하여 21%, 1人當 GNP는 46%에 不過하다. (2)

이와 같은 經濟總量規模의 현저한 隔差는 韓國經濟가 60年代以後 高度成長을 持續하였고, 특히 1973~74年, 1978~79年の 世界的 不況에도 불구하고 이에 適切히 對應하여 온 반면에, 北韓에 있어서는 最近 投資率이 30% 以上の 高率임에도 불구하고 資本의 浪費와 非効率的인 投資計劃에 起因하여 經濟가 沈滯의 局面에

(2) 北韓의 GNP는 北韓이 發表하는 斷片的인 資料, 即 1人當 國民所得額 또는 몇가지의 産業部門別 生産量 또는 成長指數를 가지고 推計하였다. 그러나 1981年の 경우 一切의 經濟統計가 發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北韓의 豫算 및 決算資料를 통한 政府의 消費支出 및 固定資本形成, 歲出入間의 純差額을 利用한 在庫變動, 北韓住民 1人當 食費 및 恩賜係數와 人口數를 適用한 民間消費支出, 對外去來 등을 토대로 한 支出所得接近法에 의해 GNP를 推計하였고, 아울러 推計된 工業總生産額과 알곡生産量을 토대로 回歸分析에 의한 經濟成長 寄與度 즉 相關係數를 抽出하여 成長率을 試算하였다.

韓國의 GNP 및 1人當 GNP는 韓國銀行의 暫定推計值이다.

그리고 適用換率은 韓國의 경우 1981年 平均換率 1美弗=681.30 韓國원을 適用하였으며, 北韓의 경우 1美弗=1.94 北韓원을 適用하였다.

빠졌기 때문이다.

한편 GNP에 대한 軍事費負擔率은 韓國의 경우 1981년에 6.3%水準으로 이도 높은 편이나, 北韓의 경우는 24.0%에 달해 엄청나게 높다. 이는 이스라엘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번째로 높은 軍事費負擔率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이와 같은 高率의 軍事費負擔은 經濟成長面에서 生産的인 支出이 아니므로 그만큼 成長의 潛在力을 蠶食함으로써 經濟沈滯의 主要要因이 되고 있다.

主 要 指 標

(1981年 現在)

區 分	單 位	韓 國	北 韓	備 考 (韓國 : 北韓)
人 口	萬 名	3,872	1,809	2.1 : 1
人口增加率	%	1.57	2.23	1 : 1.4
經濟活動人口	萬 名	1,471	816	1.8 : 1
面 積	km ²	99,016	122,370	1 : 1.2
G N P	經濟價格 億弗	633	135	4.7 : 1
1人當 GNP	" 弗	1,636	750	2.2 : 1
經濟成長率	實質 %	7.1	2.0	3.6 : 1
軍事費負擔率	%	6.3	24.0	1 : 8
總 投 資 率	%	27.3	30 ~ 35	1:1.1 ~ 1.3

2. 財 政 規 模

가. 南北韓 財政制度의 特徵

韓國은 私有財産制度和 民間經濟活動이 主軸을 이루고 또한 國民經濟中 그 比重이 크기 때문에 財政의 國民經濟에서의 比重은 相對적으로 적다. 1981年 最終豫算의 경우 全會計中 一般會計規模는 最終豫算基準으로 118 億弗로, GNP 633 億弗에 비하면 18.6%의 財政負擔率을 나타내고 있다.⁽³⁾

이에 비하여 共產主義體制下의 財政은 經濟活動의 모든 部門을 反映하며 統制하는 機能을 가진다. 中央集權的 計劃經濟體制下의 北韓에 있어서 財政의 役割은 中央集權的 統制經濟를 수행하여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手段이 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國民經濟活動은 財政需要에 의하여 充足되고 있다.

따라서 北韓의 財政規模는 決算基準으로 1981年의 경우 104.8 億弗로서 財政負擔率은 77.6%에 달한다. 이것은 同年 韓國의 財政負擔率 18.6%에 비하면 대단히 높은 것으로서, 이것이 共產主義 經濟體制上의 財政의 特徵을 나타내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래서 北韓의 財政은 GNP에서 지극히 소극적으로 認定되는 個人消費部門을 除外하고는 全經濟活動을 總網羅한 것이 된다.

(3) 財務規模는 中央政府의 一般會計와 其他特別會計(1981年: 49.1 億弗)를 포함한 全會計 및 地方財政(1981年: 46.2 億弗)의 總計(213.3 億弗)를 이르나, 一般的으로 中央政府의 財政支出을 表示하는 一般會計規模만을 다루었다.

나. 歲 出

1981年度 韓國의 一般會計部門 歲出規模는 8兆400億원으로 118億弗 規模이다.

特別會計는 事業 또는 基金管理를 위한 것이므로 순수한 財政支出은 一般會計部門으로 評價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部門別 歲出構成比는 一般行政費 11.1%, 防衛費 33.8%, 開發費 42.5%, 地方財政交付金 및 其他가 12.6%를 차지하고 있다.

北韓의 歲出構成比를 決算基準으로 公式發表에 의거하여 살펴보면 人民經濟費 61.3%, 社會文化施策費 22.0%, 軍事費 14.8%, 機關管理費 1.9%로 構成되어 있다. 그러나 軍事費의 一部가 人民經濟費에 隱蔽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여보면 實質軍事費는 30.9%, 實質人民經濟費는 45.2%로 評價된다.

1966년부터 北韓의 歲出構成比를 公式發表에 의하여 살펴보면 재미있는 현상을 發見할 수 있다. 즉 1966年の 경우 人民經濟費가 68.4%, 軍事費가 10.0%이었으나 1967년부터 1971년까지는 人民經濟費가 44~50%로 減少되고 軍事費가 일약 31~32%로 크게 증가되었으며 1972年 이후에는 다시 人民經濟費가 55%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軍事費는 15~17% 水準으로 激減되고 있다.

이와 같이 軍事費가 時期에 따라 크게 變化하는 것은 必要에 따라 軍事費가 他費目에 隱蔽되고 있기 때문이다.

1966년까지 「民族保衛費」라고 부르면서 10% 이하로 發表해 온 軍事費를 1967年 「國防費」로 改稱하고 그 構成比를 30.4%로 大幅 增加시켜 發表한 것은 종전에 人民經濟費 등에 隱蔽했던 것

을 現實的으로 드러내 놓은 것으로서, 60年代 中盤期부터 中·蘇紛
쟁이 激化됨에 따라 北韓이 獨自路線을 표방하면서 南侵野慾을 露
骨化한데 起因한 것이다.

그후 1972年부터 갑자기 軍事費가 切半으로 減少되고 人民經濟
費가 다시 增加한 것은 東西和解와 南北赤十字會談 등 南北間의 接
觸에 따라 對外宣傳을 고려하여 「平和이미지」扶植을 위해 軍事費
를 他費目에 다시 隱蔽시켰기 때문이다.

그 實證的인 證據로는 1972年 이후 人民經濟費가 急增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北韓 經濟의 成長은 鈍化되었고, 그렇게 軍事費가 減
縮되었음에도 戰爭準備를 위한 人的, 物的 動員이 強化되었음이 이
를 反證하는 것이라 하겠다.

다. 歲 入

韓國의 財政收入은 租稅, 專賣益金, 稅外收入, 其他로 構成되고 있
으며 1981年 이의 構成比는 各己 81.6%, 8.5%, 3.6%, 6.3%
로서 租稅收入이 大宗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北韓의 歲入은 社會主義經理收入金으로 全歲入豫算을 充當
하고 있다.

北韓은 生産活動에 수반되는 收入이 전부 財政收入이 되는데 이
는 財政規模가 GNP의 75%内外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社會主義經理收入金의 內容은 去來收入金, 國家企業利益金, 協同團體
所得稅, 其他收入으로 構成되고 있는데 각각 項目別 內容을 說明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去來收入金은 國營企業所 또는 生産工場이 商品을 生産하여 産業 및 他産業機關에 인도할 때 徵收되는 物品去來收入金으로 去來稅와 消費稅로 나누어지며 우리의 附加價値稅와 類似하다. 이는 北韓의 豫算收入中 55%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收入源이다.

둘째 國家企業利益金이란 獨立採算制에 의하여 운영되는 각종의 企業所 및 生産工場에서 形成되는 제품의 도매가격중에서 自體經費를 공제한 殘餘基金을 稅源으로 한 것인데 總豫算收入의 3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셋째로 協同團體所得稅란 각종 協동단체의 生産活動에서 얻어진 利益에 부과하는 것이다.

끝으로 其他收入金은 減價償却回收金 및 罰課金, 援助收入 등으로 構成되며 歲入總額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그밖에 勤勞所得稅, 文藝所得稅, 地方自治稅 등이 1974년까지는 歲入의 2% 정도를 차지했으나 1975년부터 이것을 철폐하고서 北韓은 “세금이 없는 나라”처럼 誇大宣傳하고 있다.

北韓의 論理에 따르면 所得稅와 住民稅는 住民들이 直接 負擔하는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이 稅金を 폐지하는 것이며, 다른 收入金은 共產集團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分配分이므로 稅金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이 經理收入金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도 이러한 理由 때문이다.

그러나 去來收入金이라고 부르는 間接稅形態의 比重이 歲入總額의 55% 이상의 수준으로 이는 住民들이 租稅負擔感을 직접 느낄 수 없는 것에 불과하지 住民들의 租稅負擔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3. 農水産部門

가. 農業構造

韓國은 60年代 中盤이후 重農政策을 추진하여 쌀·보리의 自給과 農業所得増大를 위한 꾸준한 努力을 전개하여 왔으며, 특히 科學的인 營農技術과 多收穫品種 開發의 効果는 실로 多大하였다.

그러나 農業生産의 自然的 制約과 工業部門의 高度成長의 결과 韓國의 産業構造는 1966년까지 農林水産業의 國民總生産에 대한 構成比가 40%이상이던 것이 점차 줄어 1981년에는 18.1%로 현저히 감소되었다.

北韓에서는 農業經營이 協同農場을 主軸으로 하는 社會主義的 集團農業經營體制를 취하고 있다. 그들은 1946年 3月 「土地改革實施에 관한 法令」과 「同 實施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공포함으로써 土地의 沒收와 再分配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1953년까지 형식적으로는 集團農場이 아니라 個人農場形態를 취하였으나, 休戰後 1954년부터 1958년까지 農業集團化를 강행함으로써 현재 약 3,700餘個所의 協同農場과 國營農牧場에 흡수되어 共產主義國家에서도 가장 硬直化된 集團農場經營體制를 이룩하고 있다.

協同農場의 作業體制는 管理委員會 밑에 作業班, 分組 및 作業員이 있으며 1965年 11月부터는 이른바 「分組都給制」를 실시하여 착취를 위한 일종의 請負制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15~20名으로 구성된 分組 책임하에 모든 生産活動을 책임지게 하는 것으로서 「勞力の 組織性」을 강요함과 동시에 勞力時間과 生産結果를 綜合한 「工數」(勞力點數)에 의하여 分配量을 결정하게 하여 저조

한 생산실적을 높여보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투자에도 불구하고 農業生産性이 微弱한 것은 營農技術水準의 落後뿐만 아니라 「物的 誘因」(Material Incentive) 缺如로 인한 勞動意志 漸減과 協同農場 管理·運營上의 諸問題點에 起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나. 農業生産基盤

韓國의 農耕地面積은 218萬8千町步로서 南韓面積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北韓은 210萬4千町步로서 耕地率이 16.9%에 불과해 우리보다 5.1% 포인트나 低率이다. 이는 北韓面積中 韓國에 비해 많은 部分이 農耕이 不可能한 山岳 및 江·河川地域으로 構成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田畝의 比率에서 우리는 畝이 130萬8千町步로서 59.8%, 田이 88萬町步로서 40.2%를 차지하고 있으나, 北韓은 우리와는 겨우로 田이 146萬9千町步로서 69.8%, 畝이 63萬5千町步로서 30.2%에 불과하다.

따라서 畝面積은 韓國이 北韓에 비해 2배이며, 田面積은 北韓이 韓國의 1.6배에 이른다.

農家人口는 韓國이 999萬9千名으로 總人口의 25.8%를 차지하고 있으며 農家戶數는 203萬戶이다. 한편 北韓은 農家人口가 683萬7千名으로 總人口의 37.8%에 해당하며 農家戶數는 123萬9千戶이다. 따라서 農家戶當 耕地面積은 韓國이 1.08町步인데 비

해 北韓은 1.7町步로 상대적으로 다소 높다. (4)

그러나 韓國에서는 工業化의 進展으로 農家人口의 比重이 점차 감소되고 있으며 1970년에 비해 1981년에는 總人口中 構成比가 18.9% 포인트나 감소되었으나 北韓에서는 최근 鑛工業部門의 稼動率 低調로 農村人口가 多少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農業의 機械化를 보면 韓國의 경우 트랙터를 포함하여 動力耕耘機가 35萬4千台, 揚水機 21萬台 等 140萬台를 保有·稼動하고 있으나 北韓은 트랙터(15馬力換算基準) 約 13萬台와 多數의 連結農機械를 協同農場의 農機械作業班이 保有하고 있다.

北韓의 경우 1950年代 後半부터 農業機械化에 착수하여 韓國보다 앞서 시작하였으나 그 후의 發展速度는 韓國이 北韓을 앞지르고 있다. 다만 北韓의 경우 農業集團化가 完了된데다가 田作爲主의 營農體系로 인하여 트랙터와 貨物自動車 위주의 重裝備에 의한 機械化가 추진되는데 반해, 韓國의 경우 個人營農에 의해 農業의 零細性を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데다·水稻作 위주의 營農體系로 인하여 耕耘機 위주의 小型 農機械를 投入하고 있다.

化學肥料의 需給實態를 보면 韓國은 1967년까지 相當量을 導入하였으나 1968년부터 完全自給이 可能해졌으며, 1971년부터는 「統一」系의 多收穫多肥品種의 開發로 소비량이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76년부터는 充分한 自給과 輸出物量을 確保하고 있다.

(4) 農家人口는 郡部以下人口로 定義하여 推計하였으며, 北韓의 경우 勞働者區를 포함한 都市化率推計根據에 의거 農家人口를 推計하였다. 그리고 北韓의 경우 集團農場下에서 戶當耕地面積은 意味가 없다. 다만 農土와 農家戶數를 對比한 平均面積으로서의 意味는 있다 하겠다.

현재 韓國의 施肥量은 成分含量基準으로 町步當 381 kg에 이르고 있으나 北韓은 아직도 町步當 274 kg에 不過한 實情이며, 이도 成分含量이 낮은 磷肥料의 過多施肥에 기인하는 결과이다.

또한 韓國의 育種理論과 技術水準은 국제수준이며, 이밖에 營農技術도 크게 改善되어 段步當 쌀生産量은 1981년에 414 kg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北韓은 아직도 育種理論에 있어 日帝때의 理論과 소련 및 中共學者들의 理論 등, 3元化로 인해 昏迷狀態에 있으며 營農技術도 低級하여 段步當 쌀生産量은 228 kg에 머물고 있다.

以上과 같은 農業生産基盤을 綜合評價해볼 때 韓國은 畝이 北韓의 2倍이며 水稻作中心의 農業을 營爲하게 되는데 비해 北韓은 田이 韓國의 1.6倍이며 옥수수를 主宗으로 하는 田作爲主의 農業이나 耕地面積, 無霜日數, 降雨量 등에서 韓國이 유리한 農業基盤을 가지고 있으며, 그외 施肥量, 育種, 營農技術 등의 모든 면에서 韓國이 優勢하여 궁극적으로 높은 勞動意志와 함께 土地生産性이 월등히 높다.

다. 食糧作物生産量

韓國의 1981年度 食糧生産實績은 穀物 647萬1千屯, 薯類 45萬5千屯을 포함하여 모두 692萬6千屯이다. 특히 水稻作 위주의 營農體系로 인하여 穀物中 쌀은 506萬3千屯에 이른다.

北韓의 경우 農業生産基盤과 穀種別 植付面積, 單位面積當收穫量을 감안하여 推計해보면 穀物 510萬屯과 薯類 26萬8千屯을 포함하여 食糧作物生産量은 536萬8千屯에 不過하다.

라. 水産物生産量

休戰直後 北韓은 農業의 集團化와 더불어 水産業部門도 水産事業所와 水産協同組合으로 集團化하여 漁業의 零細性を 改善하고자 서둘렀다. 따라서 1970年까지는 水産物の 生産量에 있어서 北韓이 韓國보다 약간 앞서는 입장에 있었다.

그러나 韓國은 1962年에 水産協同組合을, 1963年에 水産開發公社를 이어 發足시킴으로서 水産業部門의 오랜 零細性を 탈피하는 한편, 나아가 遠洋漁業을 發展시킬 수 있었다. 특히 1970年 7月에 개최된 水産物輸出振興會議를 계기로 韓國의 遠洋漁業은 先進國水準으로 급성장하였다. 그러나 北韓의 경우 70年代 中盤까지 内水面漁業과 近海漁業에만 치중하였기 때문에 水産業部門은 擔保상태를 면치 못하였으며, 1974年 新浦와 金策市에 遠洋漁業基地를 設置하였다하나 기껏 십수척의 遠洋漁船을 오츠크海에 出漁시키는 정도였으므로 水産物生産増大에 큰 效果를 보지 못하고 있다.

1981年度 關聯統計를 보면 韓國이 動力船 5萬1千척을 포함하여 總漁船數가 7萬8千척에 달하고 물고기 236萬8千屯을 포함하여 281萬2千屯의 水産物を 生産한데 비해, 北韓은 2萬8千척의 漁船保有로 물고기 134萬屯을 포함하여 179萬屯의 水産物を 生産하였다.

農水産部門指標

(1981年 現在)

區 分	單位	韓 國	北 韓	備 考 (韓國 : 北韓)
耕 地 面 積	千町步	2,188	2,104	1 : 1
食糧作物生産量 (쌀)	千 屯	6,926 (5,063)	5,368 (1,450)	1.3 : 1 3.5 : 1
段步當쌀生産量	kg	414	228	1.8 : 1
農機械保有台數	千 台	動力耕耘機 350	트랙터 (15馬力換算) 133	2.6 : 1
水産物生産量	千 屯	2,812	1,790	1.6 : 1
(漁 獲 量)	"	2,368	1,340	1.8 : 1

4. 續工業部門

가. 政策目標 및 工業化戰略

우리의 經濟開發의 궁극적 目標은 國民生活의 向上에 있으며 이는 풍요한 消費生活를 가능케 하는데 있다. 우리가 生産財를 生産하는 이유도 生産財를 이용하여 보다 좋은 消費財를 보다 많이 生産할 수 있기 때문이다. 北韓은 그들 經濟體制의 궁극적 目標을 「人民生活의 획기적 向上」에 있다고는 하나 실제에 있어서 지금까지 軍需産業 위주의 重工業建設에만 힘쓰고 日常生活에 직결된 輕工業部門의 건설을 극도로 抑制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財源의 不足으로 關心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는 住民生活의 向上을 不可能하게 할 뿐만 아니라 産業構造의 歪曲으로 인하여 經濟發展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韓國의 工業化過程은 1960年代初에는 輸入代替産業의 育成에 注力하였고 곧이어 60年代 中盤부터는 이것이 輸出産業으로 轉換됨으로써 高度成長을 主導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70年代에는 重化學工業을 開發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의 工業化는 國內外 市場需要를 토대로 消費財工業을 먼저 開發하고, 다음에 生産財工業을 開發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輕工業 基盤이 構築되고 社會間接資本施設이 擴充된 바탕위에서 重化學工業이 획기적으로 發展하고 있어 全體적인 均衡發展이 이룩되고 있다.

그러나 北韓은 이와 반대로 消費財市場을 무시하고 重工業을 먼저 開發한 結果로 産業構造가 均衡을 잃고, 社會間接資本施設의 不備, 輕工業의 不振으로 全體의 經濟開發에도 非能率的인 結果를 초래하였다.

나. 鉍工業 資源과 에너지

鉍工業資源面에서 北韓은 월등히 유리한 條件에 있다. 망간, 규사, 고령토 등 몇몇 鉍物을 제외하고는 工業化의 基盤이 되는 賦存資源面에 있어서 韓國보다는 北韓에 많은 鉍種이 埋藏되어 있다. 현재 南北韓의 主要鉍物 埋藏을 비교해 보면 石炭은 北韓이 120億屯, 韓國이 15億屯, 鐵鉍石은 北韓이 30億屯, 韓國이 1億2千萬屯에 불과한 實情이다. 이와 같은 地下資源과 動力資源의 偏在를 기초로, 解放後 日本은 韓半島를 大陸進出을 위한 兵站基地로서 南에는 農業生産基盤을 구축한 반면, 北에는 兵器産業을 비롯한 諸資源關聯産業을 配置시킴으로써 韓半島 重工業의 80%가 北韓에 集中되었으며 工業總生産額의 60%를 北韓이 점하고 있었다.

8.15 解放은 이러한 南北韓間의 補完關係를 근본적으로 破壞하였으며, 北韓은 유리한 重工業資源을 바탕으로 1960年代까지는 金屬 및 機械工業이 韓國에 비해 優位에 있었다.

그러나 韓國은 資源面에서의 不利한 與件에도 불구하고 開放體制를 바탕으로 資源의 開發輸入 等 安定的 導入에 힘써 70年代에 들어와서는 모든 部門에서 北韓을 壓倒하게 되었다.

工業化의 原動力인 에너지開發에 있어서 韓國의 경우 1981年度 石炭生産量은 1,987萬屯인데 비해 北韓은 2,850萬屯을 記錄하였다. 이외에 南北韓은 共히 製鐵·製鋼用 原料炭인 코킹콜 生産이 全無하므로 이를 海外導入에 依存하는 바, 韓國은 무연탄 430萬屯외에 유연탄 727萬屯을 輸入하였으며, 北韓은 유연탄중 粘結炭과 코크스를 約 150~200萬屯정도 輸入한 것으로 보인다. 精油施設 能力은 韓國이 現在 日産 79萬배럴 能力을 保有하고 있으나 北韓은

主要鉍物 埋藏量

(1981年現在)

區 分	單 位 (%)	單位	韓 國	北 韓	備 考 (韓國:北韓)
鐵 鉍 石	Fe 50	億 屯	1.2	30.0	1 : 25
銅	Cu 100	萬 屯	10.5	215.5	1 : 21
鉛	Pb 100	"	49.2	600.0	1 : 12
亜 鉛	Zn 100	"	73.8	1,200.0	1 : 16
石 炭	Kc al 4,000/kg이상	億 屯	14.5	119.9	1 : 8
石 灰 石	CaO 50	"	14.9	1,000.0	1 : 67
우 라 늬	U ₃ O ₈ 0.3~0.4	萬 屯	5,600.0	2,600.0	2 : 1

조선 및 中共援助로 건설된 勝利化學과 烽火化學의 두 精油工場의 日産 8萬배럴能力을 保有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所有되는 原油는 韓國이 1981年 2,528萬屯을 導入한데 비해 北韓은 208萬屯을 導入한데 불과하다. 그러므로 北韓은 石油化學工業 뿐만 아니라 石油에너지部門에서 아직도 初期의 建設段階에 머물러 있다. 할 것이다. 發電施設容量 역시 韓國이 水力, 火力 및 原子力發電所를 포함하여 1,084萬kw에 달하는데 비해 北韓은 水力發電所 위주의 510萬kw에 불과하다. 이에 따른 發電量은 韓國이 約 440億KwH에 달하는데 비해 北韓은 生産電力量이 222億KwH에 불과하다. 이도 압록강 國境河川에 設置되어 있는 水豊과 雲峰의 두 水力發電所는 中共과 共同運營함으로써 同 發電所 生産電力의 切半은 中共에 送電하는데 이를 除하면 實際 供給電力은 202億KwH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이도 送配電上의 途中電力損失과 所內消費를 除

한 實際消費電力은 166 億 KwH에 불과해 심각한 電力難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볼 때 北韓은 심각한 에너지 不足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는 에너지多消費産業構造 이외에도 에너지機器의 老朽化와 實動率 低調에 起因하는 결과라 할 것이다.

다. 重化學工業

1) 鐵鋼 및 非鐵金屬工業

1981 年末 現在 粗鋼生産能力에 있어서 韓國은 年間 1,247 萬屯으로 北韓의 400 萬屯에 비해 3 倍나 큰 生産能力을 保有하고 있다. 그리고 銑鐵生産能力에 있어서도 802 萬屯 對 354 萬屯으로 2 倍以上 격차가 나며, 더우거나 圧延鋼材生産能力에 있어서는 韓國이 冷間 및 熱間 1,381 萬屯을 保有한데 비해 北韓은 200 萬屯밖에는 保有하고 있지 못하며 施設 역시 相當히 老朽化되어 있다.

이는 韓國이 1972 年 浦項製鐵 第 2 高爐의 稼動을 계기로 粗鋼能力이 大幅 확장되었고, 또한 同 工場의 第 3, 4 期 擴張工事に 힘입어 그 施設規模와 生産量이 크게 增大되었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北韓은 既存 鐵鋼生産施設이 20~30 年前의 낡은 施設이고 生産工程이 前近代的인데다 經營上의 각종 非合理性이 複合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850 萬屯 粗鋼生産能力의 浦項製鐵 從業員數가 附屬工場을 포함하여 1 萬 6 千名인데 반해, 北韓의 金策製鐵所와 5 個 製鐵·製鋼工場을 포함한 400 萬屯의 粗鋼生産能力을 稼動하고 있는데 從事

하는 從業員數가 6萬5千名이라는 事實을 보더라도 北韓의 落後相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特殊鋼生産은 軍需産業을 일찍 開發한 관계로 어느 정도의 技術蓄積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非鐵金屬의 경우 北韓은 外貨獲得을 위한 戰略輸出商品으로 이를 일찍 開發하여 왔으나 銅, 鉛, 亜鉛 等 非鐵金屬의 總生産能力은 24萬4千屯으로서 韓國의 26萬屯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알루미늄은 韓國이 年間 1萬8千屯의 生産能力을 갖고 있으나 北韓은 소련의 援助로 北倉알루미늄工場을 建設中이라고 宣傳만 하고 있을 뿐 所要 알루미늄 全量을 輸入에 依存하고 있다.

鐵鋼 및 非鐵金屬工業

(1981年現在)

區 分	單 位	韓 國	北 韓	備 考 (韓國：北韓)
銑鐵生産能力	萬 屯	802	354	2.3 : 1
粗鋼生産能力	"	1,247	400	3.1 : 1
圧延鋼材生産能力	"	1,381	200	6.9 : 1
非鐵金屬生産能力	"	26	24.4	1.1 : 1

2) 機械工業

機械工業은 北韓이 軍需産業 중심의 重工業優先政策에 따라 가장 力點을 두어 開發해 온 部門이다. 그러나 韓國은 70年代에 重化學工業의 중점적 開發과 더불어 이 部門에서도 급속한 伸張을 이룩하였기 때문에 現在는 炭鉍山の 大型採掘設備部門을 제외하고는 韓國이 優勢하다. 특히 自動車, 船舶 等 輸送用 機械와 紡織機械, 電氣機器面에서 韓國은 先進國 水準에 이미 突入하였다. 이러한 결

과는 北韓의 경우 内向性 經濟開發과 採算性を 무시한 軍需産業 위주의 機械工業 開發로 少數의 大型機械들도 自體生産에 주력하였는데 비해, 韓國은 對外指向的 成長과 市場性에 의하여 需要에 따른 機械工業을 推進하고 있는 점에 起因한다. 즉 北韓은 軍需産業의 開發을 위해 關聯産業인 動力 및 工作 機械工業을 중점적으로 育成하였으나 韓國은 大型裝備나 機械를 생산할 수 있는 能力은 保有하고 있지만 市場經濟의 원리에 따라 需要가 많지 않거나 經濟性에 따라 大量生産이 不可能한 것은 生産하지 않고 輸出産業 및 內需市場 위주의 工業化에 따라 電氣, 電子, 輸送用機械, 紡織機械 生産에 치중한 때문이다.

主要 機械工業部門의 南北韓 力量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自動車生産能力은 韓國이 年間 33萬7千臺를 生産할 수 있는 施設을 保有하고 거의 모든 車輛을 生産·輸出하고 있으며, 造船能力은 年間 400萬噸으로 세계에서 日本 다음의 第2位의 造船國이다. 北韓은 年間 1萬5千臺의 自動車生産能力을 갖고 있으나 주로 小型 貨物自動車만 생산하고 있고 乘用車 및 大型輸送用車輛 그리고 特殊貨物運搬車輛은 소련, 체코, 日本 等地에서 輸入하고 있다.

또한 造船部門에 있어서도 年間 35萬噸 정도의 能力을 保有하고, 規格화된 貨物船과 冷凍運搬船을 內需用으로 數척 建造하는데 불과한 零細性を 면치 못하고 있다. 最大船 建造實績 역시 韓國이 26萬噸級인데 반해 北韓은 2萬噸 水準에 있어 比較가 안될만큼 技術水準은 微弱하다.

工作機械는 北韓이 年間 3萬臺 生産能力을 일찌기 保有하였다고 發表하고 있으나 機種이 多様な 工作機械의 生産能力을 臺數로 評價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구태여 韓國의 工作機械 生産能力을

量的으로 評價해 본다면 선반, 불반, 터닝반을 합해 年間 4萬5千臺에 달하며 이도 컴퓨터가 装着된 數値制御旋盤(N.C.C)은 海外에서 好評을 받는 有力한 輸出商品이다. 農業用機械에 있어서도 動力耕耘機生産 위주의 韓國과 트랙터生産 위주의 北韓과의 比較上에 生産臺數의 比較는 意味가 없다. 단지 生産能力的 優劣을 判斷하기 위해서 各己의 動力, 즉 馬力을 基準으로 比較해 본다면 韓國이 15馬力 換算基準으로 耕耘機 5萬1千臺, 北韓이 트랙터 3萬臺를 年間 生産할 수 있는 能力和 施設을 保有하고 있다.

機 械 工 業

(1981年現在)

區 分	單 位	韓 國	北 韓	備 考 (韓國:北韓)
自動車生産能力	萬臺	33.7	1.5	22 : 1
造船能力	萬屯(G/T)	400	35	11 : 1
工作機械	萬臺	4.5	3	1.5 : 1
農業機械	萬臺(15馬力換算)	5.1	3	1.7 : 1
손목時計	萬個	1,730	10	173 : 1

3) 化學工業

化學工業도 당초에는 金屬 및 機械工業과 마찬가지로 北韓이 優位에 있었으나 現在는 比較가 안될 만큼 韓國이 絶對的인 優位에 있다. 解放 當時 北韓에는 年産 48萬屯 規模의 興南肥料工場을 비롯하여 主要한 化學工場이 있었으나 韓國은 1950年代末까지 化學肥料를 全量 外國에서 輸入하여야만 했다. 그러나 1959年 忠州肥料工場의 建設로 化學肥料 自給의 基盤을 構築하기 시작한 韓

國은 1977年 第7肥料工場의 稼動에 힘입어 1981年 現在 化學肥料生産能力은 成分含量 基準으로 140萬3千屯에 이르게 되었으며 同年 北韓의 92萬屯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合成樹脂의 경우는 그 격차가 더욱 커서 韓國의 경우 石油化學工業體系로서의 PP, PE, ABS 등의 主要合成樹脂 生産能力은 90萬屯에 달하나 北韓은 石炭化學工業體系로서 염화비닐과 石炭酸樹脂 中心의 10萬屯에 불과하다. 시멘트 역시 韓國이 풍부한 石灰石埋藏量을 바탕으로 2,345萬屯의 生産能力을 갖고 있는데 비해 北韓은 800萬屯정도의 年産能力을 保有하고 있다.

化 學 工 業

(1981年現在)

區 分	單 位	韓 國	北 韓	備 考 (韓國:北韓)
化學肥料生産能力	成分含量基準 萬 屯	140.3	92	1.5 : 1
시멘트生産能力	萬 屯	2,345	800	2.9 : 1
主要合成樹脂生産能力	萬 屯	90	10	9 : 1

4) 輕 工 業

北韓은 計劃當局에 의해 財貨의 價格이나 供給量이 一方的으로 決定되는 典型的인 點供給形態의 計劃經濟體制임은 既述한 바와 같다. 따라서 生産되는 製品의 種類가 單調로울 뿐만 아니라 量的인 生産目標만이 強要되고 있기 때문에 生産單位工場에서는 計劃과 割當量을 맞추기 위하여 量的 生産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더욱기 供給側面에서는 競争條件이 存在할 수 없고 需要側面에서는 消費者의 選好를 판단할 基準이 없기 때문에 精確한 需給의 調節은 不可能

하다. 그러므로 消費財의 供給不足과 質의 粗惡은 住民의 窮乏生活를 避치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最近의 韓國이 所得水準의 向上과 輸出增加를 배경으로 消費財生産이 增大되었고, 특히 輕工業部門은 製品의 種類가 多樣化되었고 品質은 高級化되어 消費者의 嗜好와 需要에 맞추어 광범위한 供給 및 流通體系를 갖추고 있는 것과는 아주 대조적이다.

主要 輕工業指標를 살펴 볼 것 같으면 韓國은 纖維生産의 경우 100萬屯의 生産能力을 가진데 비해, 北韓은 12萬屯 정도이며, 이 중 織物은 韓國이 41億 5千萬미터; 北韓이 6億미터로서 현격한 隔差를 보이고 있다. 특히 電子製品의 경우 韓國은 輸出産業으로서 크게 成長, 1981년에는 黑白 T/V 650萬臺, 컬러 T/V 200萬臺의 生産能力을 갖추고, 이의 普及도 世帯當 1臺以上 普及되어 있다. 北韓의 경우는 眞空管式 黑白 T/V 10萬臺 生産과 日製部品을 組立한 컬러 T/V 5萬臺정도의 生産能力을 保有하고 있는데 불과하다. 이밖에 冷蔵庫, 洗濯機, 재봉틀, 自轉車 等 日用品에 있어서도 北韓은 増産을 強調하고는 있으나 그 實績은 미미한 정도이다.

輕 工 業(電子電氣工業包含)

(1981年現在)

區 分	單 位	韓 國	北 韓	備 考 (韓國 : 北韓)
纖維生産能力	萬 屯	100	12	8 : 1
織物生産能力	億 M	41.5	5.6	7 : 1
신 발	百萬足	304	50	6 : 1
T/V 受像機	萬 臺	850	15	57 : 1
冷 藏 庫	萬 臺	154	1 ~ 2	77 ~ 154 : 1

그리하여 지금도 北韓住民들이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物品 내지 羨望의 對象이 되는 物品은 손목시계 특히 電子손목시계, 트랜지스터·라디오, T/V, 아크릴쉐타가 꼽히고 있는 것으로 보아 輕工業水準과 住民消費生活 정도가 어떤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5. 社會間接資本部門

가. 概 念

「허쉬만」(A. O. Hirschman)에 따르면 社會間接資本(Social Overhead Capital : SOC)은 財貨와 서비스의 生産에 직접 사용되는 資本이 아니라, 間接적으로 生産活動을 支援하고 促進하는데 필요한 資本으로 直接生産資本(Directly Productive Capital : DPC)에 대응되는 概念이다. 그 내용은 港灣, 鐵道, 道路, 通信 및 發電施設들의 設備物로서 一般的으로 公益事業이기 때문에 公共所有(Public Ownership)의 形態를 취하며, 설사 個人所有의 경우라도 政府의 規制를 받는 規制産業(Regulated Industry)의 範疇에 속한다.

그러나 北韓과 같은 共產主義國家에서는 모든 産業이 國公有이며 中央政府의 計劃에 의하여 生産을 함으로써, 그 所有形態에 있어서나 또는 規制産業으로서 一般産業과 社會間接資本을 區分할 수 없다.

특히 北韓에서와 같이 「生産的 建設」과 「非生産的 建設」이라는 말로 直接生産部門과 間接生産部門의 區別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그 語義가 뜻하는대로 非生産的 建設이 社會間接資本과 完全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資本主義國家에 있어서 社會間接資本은 工業發展의 環境造成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써 그에 대한 投資가 중시되며, 특히 개발 초기 韓國의 經濟成長은 社會間接資本이 先導的 役割을 하였음을否認할 수 없으며 1981年度 國民總生産에 대한 比重은 社會間接資本 등 其他部門이 51.1%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共產主義國家의 경우 社會間接資本部門에 대한 投資는 投資規模가 尨大하고 資本의 懷妊期間이 長期인 반면, 投資效果의 量的 測定이 곤란하다는 特性으로 말미암아 이른바 非生産的 投資로서 投資規模가 상대적으로 적다. 1970年の 경우를 例로 들면 韓國은 社會間接資本에 全産業投資의 37.5%, GNP의 10.5%를 投資한데 비해, 北韓에서는 生産的 投資의 優先으로 社會間接資本은 總投資의 27.7%, GNP의 8.3%에 그쳐 韓國보다 그 比重이 적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낮은 比重도 점차 줄어드는 경향에 있어 現行 第2次 7個年計劃中에는 總投資의 20%미만을 社會間接資本部門에 投資하도록 計劃되어 있다.

나. 社會間接資本施設

社會間接資本中 發電施設은 이미 에너지産業部門에서 살펴 보았으므로 運輸와 通信部門을 重點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오늘날의 輸送手段은 鐵道를 비롯하여 高速道路, 海運, 航空 등 多樣하다. 이 중에서 鐵道는 종래 輸送手段의 核心이었으며 또한 輸送手段이 多樣하게 발달된 오늘날에도 貨物輸送에 있어서는 鐵道の 役割은 대단히 중요하다.

韓國의 鐵道는 現在 總延長이 6,007 km이며 이중 電鐵化 區間은 923 km이다.

北韓의 경우 험준한 地形·地勢에 따른 立地條件과 南北으로 가로놓여 있는 狼林山脈, 咸鏡山脈이 東西間을 分離시켜 놓은 關係로 輸送上의 困難을 많이 겪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輸送難을 緩和시키기 위해 東西間의 連結鐵道 建設에 苦心하고 있으나 投資規模의 龐大함과 人力需要의 過多로 별 進展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與件下에 北韓의 鐵道總延長은 4,380 km이며 이중 39%인 2,600 km가 電鐵化되어 있다. 이는 北韓의 輸送構造上 貨物輸送의 90%, 旅客輸送의 60%를 鐵道가 擔當하고 있으므로 해서 생기는 鐵道輸送의 停滯性을 脫皮하고 輸送의 牽引能力을 提高하기 위하여 電鐵化에 注力해온 結果이다.

그러므로 北韓은 電鐵化를 위해 「速度戰青年突擊隊」를 組織하는 등의 政策的 努力을 벌리고 있는 것이다.

道路輸送에 있어서는 韓國의 경우, 道路總延長은 5萬餘km이며 이중 高速道路는 1,245 km로 全國의 1日生活圈이 完全히 實現된 바 있다. 또한 鋪裝道路比率은 34%에 달하고 있으며 自動車運行臺數는 57萬餘臺에 이르러 점차 道路輸送의 比重이 커지고 있으며, 1981年 現在 自動車輸送比重은 旅客輸送面에서 鐵道の 16倍, 貨物輸送面에서는 2倍以上으로 모든 輸送手段中에서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北韓은 道路總延長 2萬餘km에 高速道路는 240 km에 불과하며 이중 平壤 - 元山間 (180 km) 高速道路는 軍事的 目的에 活用되는 道路이다. 道路鋪裝率 역시 5%에 불과해 道路裝備는 粗雜한 實情인데, 이는 北韓社會에 居住移轉의 自由가 없는 것과 脈을 같이한다 하겠다. 이렇게 落後된 道路輸送은 鐵道와 海運輸送의 補助手段으로 利用되고 있으며 低地帶인 平壤一帶와 西海岸一帶

의 道路만이 整備되어 있다.

海運能力面에서 南北韓을 비교하여 보면 韓國은 對外貿易의 增大와 더불어 그 重要性이 날로 增加되어 現在 荷役能力은 8千9百萬屯에 이르고 있으며 外航船保有屯數는 612萬屯에 이르러 自國船積取率은 50%에 달하고 있다. 이에 반해 北韓은 對外貿易에 消極적이었으며 또한 東西海岸이 分離된 結果로 海運港灣施設이 貧弱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으나 最近에 와서는 對外貿易의 增大政策을 追求하면서부터 海運과 港灣施設을 整備·補強코져 努力하고 있다. 現在 北韓의 荷役能力은 南浦港 및 海州, 松林港의 改建擴張에 힘입어 3千萬屯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造船能力의 微洽과 技術水準의 落後로 外航船保有는 43萬屯에 불과하여 自國船積取率은 27%밖에는 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保有船舶不足, 傭船困難등으로 北韓의 輸出商品이 納期內에 引渡되지 않아 생기는 클레임이 品質不良으로 생기는 클레임과 같이 상당히 빈발함은 이러한 理由때문이다.

航空에 있어서 韓國은 國內 各都市間의 就航以外에 17個國 26個都市에 93臺의 航空機가 運航을 하고 있으며 그 伸張勢는 날로 늘어나는데 비해, 北韓은 不定期的인 對內路線以外에 週 1~2회의 平壤 - 北京, 平壤 - 모스크바, 平壤 - 하바로브스크의 2個國 3個都市의 國際路線밖에는 運航하고 있지 않으며, 이도 그들의 空軍에 의해 運營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航空機도 대부분이 프 로펠러機로서 15臺 保有하고 있는데 불과하다.

通信施設에 있어서는 北韓의 경우 通信保安이 철저히 정 확한 실 태를 알 수 없으나 서울의 電話加入回線이 114萬回線인데 비해 平壤은 公用電話 위주로 1萬回線을 運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이 역시 北韓의 경우 言論 및 出版의 自由가 없고 또한 電話器를 個人의 私用에 쓸 수 있는 體制가 아니므로 야기되는 結果라 하겠다.

輸送 · 通信施設

(1981 年現在)

區 分	單 位	韓 國	北 韓	備 考 (韓國 : 北韓)
鐵道總延長	km	6,007	4,380	1.4 : 1
(電 鐵)	"	923	2,600	1 : 2.8
道路總延長	"	50,337	20,800	2.4 : 1
(高速道路)	"	1,245	240	5.2 : 1
荷役能力	萬 屯	8,900	3,000	3 : 1
外航船保有	萬屯(G/T)	612	43	14 : 1
國際路線	個國(都市)	17(26)	2(3)	9 : 1
航空機保有	臺	93	15	6 : 1
電話加入者數	萬 回 線	114(서울)	1(平壤)	114 : 1

6. 對外貿易部門

가. 貿易規模

우리는 이미 南北韓 經濟體制 및 政策運營의 基本方向에 관한 比較에서 北韓의 「아우타르키」體制가 資本과 資源이 다같이 부족한 開發途上國에 있어서 얼마나 커다란 沮害要因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南北韓은 國土가 狹小하고 資源이 不足하므로 貿易과

國際的 經濟協力の 擴大가 불가피 하며, 더우기 開發初期에는 資本蓄積의 未洽으로 投資財源도 不足하고, 技術水準 역시 低級하므로 共同의 理解와 實利를 도모할 수 있는 先進國과의 資本 및 技術協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北韓은 소련과 中共 등 共產圈諸國에서 받는 援助를 제외하고는 他國과의 交易이나 經濟協力を 함으로써 經濟를 開發하는 開放과 協力の 努力을 소홀히 하는 閉鎖的인 「아우타르키」體制를 계속 固守하여 왔다.

이러한 政策方向下에서 北韓은 對外貿易을 國家管理에 의한 計劃貿易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貿易部 산하의 國營貿易商事와 그밖의 協同貿易商事を 이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貿易政策의 方向도 國民經濟가 對外指向的이 아니기 때문에 貿易이 對內經濟에 從屬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社會主義經濟建設에 필요한 物資를 일정한 輸入計劃에 따라 輸入하고 이의 支拂代錢을 확보하기 위하여 輸出計劃을 設定하고 있다.

이것은 韓國이 開發初期 처음부터 開放體制를 指向하여 貿易 및 經濟協力を 擴大하고 이에 適應할 수 있는 産業化政策을 취하여 輸出主導型의 成長과 國際競爭力 強化의 工業化를 실시하였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러한 差異로 인하여 南北韓의 貿易規模는 韓國의 경우 1981년에 國際收支 基準으로 輸出 209億弗, 輸入 239億弗로 貿易總額이 448億弗에 달해 世界交易量中 占有比가 1.15%로 世界 19位의 貿易國이 되었다. 반면 北韓은 同年 輸出 13億弗, 輸入 16億弗로 貿易高는 29億弗에 불과하며, 이는 韓國에 비하여 輸出은 6%, 輸入은 7%, 貿易高는 6%, 水準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우기 韓國은 昨今の 國際景氣 沈滯와 保護貿易障壁의 強化로 多少

의 어려움은 겪고 있으나 1962~81년의 20年間 年平均 輸出伸張率は 約 40%, 輸入伸張率は 約 30%에 달하는 急速한 發展을 거듭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輸出入構造 改善과 아울러 그 規模도 擴大될 것이므로 南北韓間의 隔差는 더욱 크게 벌어질 것이다.

또한 韓國은 현재까지 輸出入의 不均衡이 계속되기는 하나 長期間에 걸쳐 輸出伸張率이 輸入伸張率보다 월등하게 컸기 때문에 그 隔差는 점차 減少되어 불원간 均衡狀態에 突入할 것이 豫想되며, 따라서 資本受援國에서 資本, 技術과 開發經驗의 供與國으로서의 地位를 더욱 굳건히 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北韓은 60年代까지는 「아우타르키」原則의 철저한 固守로 비교적 輸出入規模 뿐만 아니라 그 隔差도 적었으나 70年代에 들어와서 交易 및 國際經濟協力經驗의 蓄積도 없이 無理한 施設材와 外債의 導入을 始作하면서부터 貿易收支 赤字가 커져 外債償還不能事態에 빠져들게 되었다.

나. 輸出入商品別, 地域別構造

輸出商品の 構造는 南北韓間에 현저한 差異가 있다. 韓國은 經濟開發初期인 1961年만 해도 그 規模의 零細性은 차치하고라도 工產品 輸出이 18%에 불과하였고 이도 單純加工의 工產品이었으며 1次產品은 82%나 되었다. 그러나 經濟開發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1963년에는 工產品이 52%로 殆半을 차지하게 되었고, 1981년에는 93%로 증가된 반면 1次產品은 7%에 불과하였다. 이것은 韓國의 産業構造가 開放體制에 適應하여 신속히 高度化되었고 아울러 輸出産業이 經濟成長을 主導한 까닭이다.

그러나 北韓의 경우 資料의 制約으로 全體 去來相對國 및 最近年度의 實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나 主要輸出

對象國인 소련, 中共, 日本의 경우를 살펴보면 工產品이 59%, 1次產品이 41%를 차지하는 실정이다. 輸入에 있어서는 韓國이 1981年 현재 資本財 24%, 輸出 및 內需用原資材 52%와 石油類 및 其他가 24%를 차지하고 있으나, 北韓의 경우 輸入品の 大部分이 輸送用機器, 電子電氣機械를 포함한 産業設備, 石油·코크스를 비롯한 에너지, 소맥 등 雜穀과 軍需物資이다. 이에 반해 主宗輸出商品은 石炭, 鐵鉍石, 鉛·亜鉛 등 非鐵金屬, 農水産物과 마그네샤크링카, 시멘트, 鐵鋼類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때 韓國은 工產品 즉 製品輸出에 原資材 輸入의 形態로서 産業構造의 有機的 高度化를 반영하고 있는데 반해, 北韓은 原資材를 輸出하고 製品을 輸入하는 後進的인 輸出入商品構造를 나타내고 있다.

北韓의 地域別 貿易構造를 살펴보면 1963년까지만 해도 共產圈과의 交易比重이 總交易量의 90%以上을 차지하였으나, 이후 점차 減少되다가 1970年代에 들어와서 對西方交易量이 大幅 增加하여 1974年の 경우 53.6%로 對共產圈 交易을 한때나마 증가하였다. 1975年부터는 다시 對共產圈 交易이 높아져 소련과 中共을 비롯한 對共產圈 交易이 大宗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理由는 前記한대로 對西方圈 交易에서 招來된 貿易收支 赤字와 短期信用에 의한 外債가 累積됨으로써 北韓이 이를 償還치 못하고 債務返濟 不能에 빠지자 西方圈의 主要 對北韓交易相對國인 日本, 프랑스, 오스트리아등이 對北韓交易을 忌避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980年度 北韓의 對소련, 中共, 日本의 交易構造를 살펴보면 輸出이 각기 31%, 24%, 11%이며 輸入은 27%, 22%, 19%로 나타나고 있어, 이로 볼 때 北韓은 上記 3個國에 輸出의 66%, 輸

入의 68%를 依存함으로써 交易의 多樣化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對 外 貿 易

(1981 年現在)

區 分	單 位	韓 國	北 韓	備 考 (韓 國 : 北 韓)
貿 易 高	國際收支基準 億 弗	447.6	29.0	15 : 1
(輸 出)	"	208.9	13.0	16 : 1
(輸 入)	"	238.7	16.0	15 : 1
貿 易 收 支	"	-29.8	-3.0	10 : 1
世界交易量中占有比	%	1.15	0.08	14 : 1
輸 出 商 品 構 造				
1 次 商 品	%	7.1	41	1 : 6
2 次 商 品	"	92.9	59	1.6 : 1
輸 出 對 象 國	國	176	59	3 : 1

Ⅳ. 南北韓 經濟成長 展望

1. 經濟開發 成果

가. 韓 國

1960, 70 年代 韓國의 經濟開發戰略은 우리에게 經濟開發에 대한 意志를 鼓吹시키고 自信心을 심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短期間內에 많은 成果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볼 때, 그 時代的 背景下에서는 妥當性和 實効性이 있는 戰略이었다.

여하튼 지나간 20 餘年間的 經濟開發의 結果로 우리 經濟는 50 年代의 社會經濟的인 惡循環을 타파하고 世界的으로 注目받는 新興 工業國으로 國際經濟的 地位가 向上되었다.

1962 年부터 經濟開發에 착수한 韓國은 1975 年 價格基準으로 第 1 次計劃期間(1962 ~ 66)에 年平均 7.8%, 第 2 次計劃期間(1967 ~ 71)에 9.7%, 第 3 次計劃期間(1972 ~ 76)에 10.1%, 第 4 次計劃期間(1977 ~ 81)에 5.8%의 經濟成長을 해왔으며 이는 20 年間に 걸쳐 年平均 8.4%의 高度成長을 持續하였음을 뜻한다.

여기서 韓國 經濟成長 成果를 綜合評價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 次産業의 成長과 특히 2 次計劃以後의 重化學工業의 開發로 産業構造가 크게 改善되었으며, 또한 이같은 産業構造의 改善은 劃期的인 輸出増大의 基盤이 되었다.

둘째, 開放體制下에서의 對外指向的 成長을 추구하여 國際經濟協力の 増大와 貿易伸張을 期하여 왔다. 이는 1964 年 韓·日國交의 正常化와 外資導入의 적극 추진으로 投資財源을 調達하였고 貿易自由化의 擴大로 世界經濟의 潮流에 順應하면서 國際競爭力을 強

化해 온 結果이다.

세째, 自立經濟의 基盤을 構築하였다. 韓國經濟는 6.25 動亂以後 外國援助에 依存하였으나 開發計劃의 成功的인 推進으로 外援을 일찍 止揚하게 되었고, 以後 外資導入에 의존하였으나 점차 外資의 依存率도 감소되어 自立的 經濟成長의 基盤을 닦아 成長과 發展의 潜在力量을 鞏固化하였다.

이와 같이 韓國의 開發戰略은 國民經濟의 成長潜在力을 向上시켜 開放體制에 의한 對外指向的인 工業化過程에 成功함으로써 自然資源의 不足과 開發初期에 있어서의 投資財源의 不足을 극복하고 持續的인 高度成長을 실현시킨 것이다.

그리하여 工業化過程에서는 輕工業에서 重工業, 나아가서 重化學工業으로의 段階的 發展을 추구하고 對內外的으로 安定的 成長基盤을 構築하였다.

나. 北 韓

北韓은 1950 年代와 60 年代의 開發初期부터 重工業優先政策을 추구하면서 「全面的인 技術革新」을 내 걸고 自力更生の 原則을 基調로 經濟開發計劃을 推進하여 왔다. 그러나 閉鎖體制下에서 國際的인 先進技術의 導入을 외면함으로써 自體技術의 向上에 限界性을 露呈하였으며, 더우기 資源과 資本이 不足한 狀況下에서 強制貯蓄手段에 의존한 開發計劃은 資本動員은 물론 그밖의 計劃遂行에 차질을 빚어 60 年代의 第1次 7 個年計劃, 70 年代의 6 個年計劃이 失敗하여 各已 2~3 年을 「未完成高地 占領의 해」, 「緩衝의 해」 등으로 表現하면서 計劃의 失敗와 差跌을 調整 또는 補完하였다. 그리고 현재 推進中에 있는 第2次 7 個年計劃도 中間實績이나 年度

別 實績發表가 전혀 없어서 그 내용을 正確히 알 수는 없으나 各種 演說文이나 報告文 및 豫決算資料등을 검토해 볼 때 상당한 問題點을 안고 있는 것으로 評價된다. 이는 當面原因으로서 첫째, 經濟管理機構의 專門化, 細分化에 따르는 「機關本位主義」와 「官僚主義」의 蔓延, 둘째 에너지 및 原資材供給 差跌로 設備稼動率 低下, 셋째 約 30億弗에 달하는 外債의 累增으로 先進設備 및 技術과 必須原資材導入 不振, 넷째 商品의 質的 低級과 國際信用 墜落으로 對外輸出擴大의 限界性 露呈을 들 수 있다.

이외에 근본적으로 北韓은 開發初期부터 輕工業은 開發하지 않고 重工業에만 置重하였기 때문에 住民生活에 필요한 生必品の 不足으로 工產品, 消費財의 高價政策을 취하였으며, 輕工業 基盤이 없는 重工業 開發로 인해 産業間의 不均衡과 資源의 浪費가 격심하여 開發速度를 鈍化시켰다. 따라서 強制貯蓄에 의한 投資率이 年 30% 内外의 高率임에도 불구하고 成長은 鈍化 乃至 沈滯되었던 것이다. 70年代 후반에 들어와서 北韓의 支配層이 住民들의 不平과 不滿을 해소할 목적으로 輕工業 發展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으나, 여전히 軍需産業 위주의 重工業優先政策을 變更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輕工業의 生産實績이 低調한 形便이다.

住民生活은 工產品消費財의 부족으로 消費物資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分配面에서도 年 30%内外의 投資率을 감당하기 위한 強制貯蓄과 GNP의 20%를 상회하는 軍事費 負擔으로 인해 住民의 消費水準은 극히 低級할 수 밖에 없다.

2. 構造的 强弱点

가. 韓 國

解放以後 戰後復舊에 허덕이던 1960년까지의 過渡期的 韓國經濟에서 經濟開發計劃을 세우고 韓國經濟가 跳躍을 시작한 60年代와 70年代의 韓國經濟의 基本戰略은 한마디로 對外指向的 成長戰略이었다.

慢性的 失業, 絶對的 貧困, 國際競爭力의 脆弱性, 膨脹하는 人口와 國家安保에 필요한 資源調達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오로지 成長만이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길이었다. 또한 1961年以來 우리는 그 以前의 輸入代替戰略을 버리고 積極的인 輸出振興政策을 통한 對外指向的 開發戰略을 成功시켜 왔다. 이는 輸入代替期間동안 대부분의 非耐久消費財의 輸入代替가 어느 정도 完了되었을 뿐만 아니라 賦存資源이 不足하며 國內市場이 狹小하고 資本과 技術蓄積이 貧困한 立場에서의 당연한 戰略이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成長爲主의 對外指向的인 政策을 政府主導下에서 強力하게 추진하며, 이외 民間企業이 獨自的으로 할 수 없는 産業生産活動의 基盤이 되는 高速道路의 建設, 各種 産業基地의 開發, 發電施設의 擴充 등 社會間接資本施設을 劃期的으로 擴大시켰다.

그리고 産業構造面에서도 開發初期에는 輕工業 中心으로 발전해 오다가 1973年 이후에는 鐵鋼, 造船 等 重化學工業에도 集中投資를 시작하여 産業構造의 高度化를 構築하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外向性 成長의 開發戰略에 따라 産業構造를 輸出産業 優先으로 開發함으로써 일찍부터 國際競爭力을 向上시킨 결과 纖維, 電子, 造船, 鐵鋼과 신발류 등의 雜貨에 있어서는 世界 有數의 輸

出國으로 浮上하였으니, 이는 政策開發과 運用의 妙를 合理的, 實際的으로 驅使해온 결과이지만 그 基底는 韓國民의 強熱한 開發意志와 參與力量의 具顯에 있었다 하겠다.

반면에 韓國經濟는 外資依存과 國際收支의 慢性的 赤字의 계속이라는 弱點을 갖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동안 大幅的인 輸出伸張으로 1977年에는 그 赤字를 止揚할 수 있을 정도로 好轉되었으나 第2次 오일쇼크로 인한 世界的인 景氣의 下落과 保護貿易主義 傾向과 「資源내셔널리즘」의 抬頭등으로 赤字는 계속되고 있으며 外債負擔은 加重되어 왔다.

그러나 韓國은 輸出商品의 多樣化, 高級化 및 輸出地域의 多邊化로 현재의 世界的인 不景氣 및 諸般 障壁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外資의 依存도 점차 止揚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高度成長에 따른 物價의 昂등과 富의 偏在現象도 80年代 「第2의 跳躍」을 위한 安定基調 確保와 各種의 社會開發 및 福祉政策의 施行, 그리고 團合된 國民經濟意志로 이를 克服해 나갈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論據는 무엇보다도 過去와 마찬가지로 韓國은 國內外市場需要와 生産企業의 利潤原理가 適切히 調和되는 創意와 能率의 基礎위에 繼續的인 技術革新과 効率的인 開發戰略에 따라 安定的 經濟成長을 이룩해 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 北 韓

北韓은 韓國에 비하여 地下資源 및 水資源이 相對的으로 豐富한 점에서 強點을 갖고 있다. 그러나 北韓도 궁극적으로는 汎世界的次元에서 볼 때, 그들의 內需市場 基盤이 적다 할지라도 資源이 不

足한 狀態이며, 따라서 對外貿易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閉鎖體制下에서 對外協力과 貿易을 무시하였음은 開發面에서의 커다란 脆弱點이 되고 있다.

이외에 北韓은 重工業優先政策으로 機械工業의 一部 部門에서 현재 韓國보다 多少 優位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아울러 軍需工業이 系列化되어 비교적 발달된 점을 指摘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特殊産業部門의 畸型的 發展은 一般産業의 發展과 聯關性을 맺을 수 없다는 점에서 制約要因으로도 指摘되는 것이다.

北韓은 이미 部門別 現況比較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社會間接資本施設과 輕工業, 化學工業部門이 크게 落後되어 있으며 특히 開發財源의 貧弱과 對外技術協力이 困難한 立場에 있기 때문에 經濟體制의 改編과 開發戰略의 轉換없이 는 그들의 經濟發展 展望은 매우 흐린 것이라고 하겠다.

3. 展望과 結論

가. 韓國의 經濟·社會發展

韓國은 70年代부터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重化學工業의 급속한 성장이 이루어짐에 따라 機械, 金屬, 化學, 造船, 電子工業등의 重要基幹産業이 成長主導産業으로 登場하게 되었다. 이들의 開發着手은 北韓보다 늦기는 하였으나 成長潛在力量이 현저히 컸기 때문에 現在 대부분의 部門에서 生産能力面이나 生産量 및 그 品質에서 優位를 확보하고 있다. 앞으로 韓國은 더 나은 投資與件의 造成과 産業間의 聯關效果를 提高시키기 위하여 社會間接資本部門의

投資를 더욱 늘려나갈 것이며, 특히 生活水準의 向上에 따른 生活環境과 관련된 社會開發 및 發展에 대한 投資도 크게 增大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地域間的 均等한 發展과 國土空間의 効率的인 活用을 위한 巨視的이고 綜合的인 投資가 大幅 이루어질 것이며, 특히 高等教育機會의 증대, 失業의 解消와 医療保險을 비롯한 諸保險 등 社會福祉政策이 더욱 활발하게 추진될 것이다.

80年代 韓國經濟의 모습은 5次計劃이 마무리되는 1986年の 國民總生産은 1千億 弗에 이르고 1人當 國民總生産은 2,300~2,400 弗水準으로 늘어남과 동시에 就業人口도 1千6百餘萬名으로 늘어나 失業率은 1980年の 5.2%에서 4%未滿으로 改善될 것이다.

한편 國民生活도 向上되어 住宅普及率은 78%로, 上水道普及率은 70%로 높아지고 医療保險受惠率은 66%로 擴大되는 한편, 醫師 1人當 人口數는 1980年の 1,485名에서 1,275名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또한 大學門戶의 擴大에 따라 大學就學率도 높아져서 1980年の 16%에서 1986년에는 2배가 늘어난 31%로 擴大되고 人口 100人當 電話普及率도 7臺에서 3배 가까이 늘어난 19臺로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5次計劃期間中 서울 - 大田間을 한 時間差로 잇는 超高速電鐵을 着工하고 湖南線區間中 裡里 - 松汀間的 101 km를 複線化할 것이다.

한편 大邱 - 光州間 東西高速道路를 건설하여 嶺南과 湖南間的 交流를 擴大할 것이며 國道 2,240 km를 鋪裝하여 國道鋪裝率을 72%까지 높일 것이다.

對外貿易의 伸張에 따른 物動量의 증가에 對處할 수 있도록 釜山, 仁川 等 主要 港灣施設을 擴充하여 港灣荷役能力을 1億 3千萬

屯으로 增加시키고 金浦, 金海, 濟州空港을 擴張하여 國內外旅客의 輸送能力을 높여나갈 것이다.

또한 水資源의 効率的 開發을 위하여 忠州댐, 合川댐, 洛東江河溝堰을 計劃期間中에 完工하고 住岩댐을 着工할 것이며, 洪水의 事前豫防을 위하여 河川 810 km를 改修할 것이다. 이러한 努力의 結集으로 80年代 「第2의 跳躍」을 達成하고 第5共和國의 基本理念인 民主, 正義, 福祉를 具顯해 나갈 것으로 展望된다.

나. 北韓經濟의 構造的 問題點과 體制變化

北韓은 1960年代의 第1次 7個年計劃의 失敗에 이어 70年代의 6個年計劃도 失敗에 그치고 말았는데 그 根本的 原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

첫째, 國民總生産의 20%以上을 넘는 軍事費 負擔이 開發財源을 잠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自力更生의 原則 즉 閉鎖體制는 先進工業國과의 資本 및 技術協力을 어렵게 하여 開發財源의 調達과 특히 技術革新의 差跌을 가져왔던 것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對外經濟協力을 시도하고 있으나 國際金融市場의 與件이 60年代보다 크게 不利해졌으며 産業構造의 國際適應力이 없기 때문에 元利金償還에 큰 困難을 일으키고 있는 實情이다.

셋째, 自然資源의 制約과 國內市場의 狹小등을 무시하고 重工業優先政策을 계속 추진한 결과 産業間的 不均衡을 심화시켜 成長速度를 鈍化시켰다.

결국 北韓은 制限된 資源, 小規模의 經濟單位에도 불구하고 重工

業優先政策을 추진하여 資源의 浪費가 많았고 막대한 軍事費 負擔과 閉鎖的인 自給經濟體制를 固守하였기 때문에 經濟開發에 失敗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겠다.

앞으로 北韓은 經濟成長의 落後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閉鎖體制로부터 開放體制로 그들의 體制를 轉換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 그 까닭은 自然資源의 制約과 資本不足 및 技術의 落後性 때문이라 하겠다.

그러나 開放體制로 轉換하려면 産業構造와 開發戰略에 있어서 國際市場의 適應力을 키워나가야 할 것인데, 이는 궁극적으로 閉鎖社會의 門戶를 開放해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執權層이 이를 실현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더우기 東歐諸國의 改革이 항상 소련의 反應을 의식하면서 행하여졌으나, 결국 그것은 소련 自體의 근본적 改革없이는 어려운 作業임을 알게 된 바와 같다. 根本적으로 北韓體制的 原動力은 政治的 「이데올로기」에 있기 때문에 經濟體制와 經濟政策은 그들 權力集團의 目的을 遂行하기 위하여 運營될 뿐만 아니라 軍事力 自體도 이제껏 그들의 政治路線을 保衛하기 위하여 動員되어 왔기 때문에 政治的인 見地에서 본다면 北韓의 經濟體制와 政策의 基本方向이 短期的으로 變化할 可能性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長期的으로는 既存 權力集團의 死亡 및 權力暗鬪 등으로 인한 權力體系의 再編成으로 지금 抬頭하고 있는 「테크노크라트」(Technocrat) 勢力的 浮上과 自己完結的 自體矛盾의 修正을 위한 政策變化가 있을 때에는 「變化促進要因」이 「變化抑制要因」보다 강하게 作用하여, 南北對峙의 狀況的 認識의 範圍內에서 調整期, 緩衝期라는 名目下에 部分的인 合理化, 實用化의 改革이 점진적으로나마 이루어지

리라고 豫想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民主統一力量과 社會正義를 具顯하기 위한 統
合力量을 계속 培養해 나가야 할 것이며, 閉鎖적이고 異端者的인 北
韓이라 할지라도 우리 民族의 한 成員으로 受容할 수 있는 態勢
를 整備해 나가야 할 것이다.